KALPAK

www.kalpak.co.kr

한진관광

서울중구 서소문로117 대한항공 빌딩 6층 KALPAK

6th Floor, Korean Air Bldg., 117 Seosomun-ro, Jung-gu, Seoul, Korea 04515

TEL 02-726-5800 FAX 02-771-9084

KALPAK CLASS

2019. WINTER. vol 62

EGYPT / Travel with a theme

KAL PAK CLASS

SEE THE UNSEEN

2019 WINTER

—

SPECIAL THEME

EGYPTIAN FANTASY

—

WORLD EXCLUSIVE

TRUE WINTER KINGDOMS

—

FOCUS

2020 HOTTEST GETAWAYS

GCSI Global Customer Satisfaction Competency Index Number 1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DELHI

전설과 신비의 땅, 인도에 귀 기울이다

대한항공 인도 델리 매일 운항
델리에서 당신만의 인도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

델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타지마할
Taj Mahal

CONTENTS

PROLOGUE

06
EDITOR'S LETTER
겨울에 관한 짧은 단상

19
PHOTO ESSAY
영원을 결정짓는 순간

TRAVEL & CHALLENGE

08
CITYSCAPE
다채로운 향과 색의 도시
'델리'

12
FOCUS
KALPAK 전문가들이 뽑은
2020 꼭 가봐야 할 여행지

20
SPECIAL
THE EGYPTIAN FANTASY
사막과 홍해, 오아시스와 신기루가 빚은 이집션 판타지

64
WORLD EXCLUSIVE
스위스부터 캐나다까지,
진짜 겨울 왕국

GCSI GLOBAL CUSTOMER SATISFACTION COMPETENCY INDEX NUMBER 1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중국 강남 4대 누각 성황각
City God Pavilion, 城隍閣

杭州 [항저우]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든 최고의 작품을 만나다

대한항공 중국 항저우 주 2회 운항
중국의 10대 명승지 서호를 품은 항저우로 모십니다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

항저우

LIFE & CULTURE

68
CULINARY TOUR
각국의 신년 음식 &
기상천외 해장법

72
STYLE
파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아이템

78
DESTINATION
〈러브액추얼리〉의
사랑이 넘치는 런던

76
EXPERIENCE
프랑스의 정원, 루아르 고성 순례

EPILOGUE & KALPAK COLLECTION

83
KALPAK COLLECTION
2019 KALPAK 겨울 상품 안내

KALPAK, SEE THE UNSEEN
Winter 2019 Vol.62 / Quarterly Magazine

KALPAK CLASS was registered as a quarterly magazine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n July 11, 2005.
Registration No. Seoul Jung, Ba 00198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contents of this magazine may be reproduc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HanJin Travel Service Co.,Ltd. & HanaroAdcom.
Opinions in this magazine belong to the writers and not necessarily endorsed by HanJin Travel Service Co., Ltd. & HanaroAdcom.

KALPAK CLASS is published quarterly by HanJin Travel Service Co., Ltd.
6th Floor, Korean Air Bldg., 117 Seosomun-ro, Jung-gu, Seoul, KOREA 04515
Tel. +82.2.726.5800 Fax. +82.2.771.9084 www.kalpak.co.kr

Publisher Park In-chai
Editorial Board Ahn Kyo-wook, Jung In-sook, Kim Jung-ho, Jung Yeo-jin

Editorial, Creative & Printing Division / HanaroAdcom
5th Floor, Sando Bldg., 8, Dosan-daero 33-gil, Gangnam-gu, Seoul, Korea 06026
Tel. +82.2.3443.8005 Fax. +82.2.3443.0021 www.hanaroad.com

Managing Director Seol Myoung-sung
Editor in Chief Lim Ji-young
Editor Lee Hyun-hwa, Kim Hong-joo, Han Yu-ri
Art Director Lee Yun-jung
Photographer Lee Yong-ki

GCSI Global Customer Satisfaction Competency Index Number 1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장자제 천문산
Tianmen Mountain, 天門山

張家界[장자제]
언어에 담기지 않는 풍경, 장자제를 만나다

대한항공 중국 장자제 주 3회 운항
중국이 간직한 비경, 장자제로 더 가까이 모십니다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

장자제

EDITOR'S LETTER

SOME THOUGHTS ON WINTER

겨울이 만드는 여러 가지 단상과 풍경들

겨울 좋아하시나요? 주변 '통신'을 접하니 추위 때문에 싫다는 분도 계시고, 눈이 와서 좋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겨울에 태어난 겨울 아이라 겨울을 무척 좋아합니다. 추위도 좋고 눈 내리는 겨울 풍경도 좋고, 화려한 루미너리가 거리를 밝히는 연말 분위기에는 언제나 설렙니다. 이맘 때면 곳곳에 우리를 사색으로 이끄는 그윽한 촛불이 켜지기 마련이지요. 사르르 떨면서 타오르는 촛불 앞에서는 들끓던 마음도 절로 소곳이 차분해지고 그간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시작 앞의 우리는 크지만, 끝 앞의 우리는 참 작고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면, 겨울을 의기소침하게 보낼 일도 아닙니다. 겨울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나고 나면 아름답다는 건 만고의 진리이니까요. 날은 춥지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좋은 사람들이 있어 가슴 따뜻해지는 계절입니다. 어떤 멋진 연말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뜻한 한 끼도 좋고 근사한 파티도 좋지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 잘 견디고 잘 보냈다는 위로와 축하의 의미에서 좋은 이들과 뜻깊은 여행으로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GCSI GLOBAL CUSTOMER SATISFACTION COMPETENCY INDEX NUMBER 1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AMSTERDAM
동화 속 풍경이 일상인 나라, 네덜란드에 반하다

대한항공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 6회 운항
유럽 여행의 중심, 암스테르담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

암스테르담

무질서와 혼돈, 그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움

DELHI INDIA

혼을 쏙 빼놓는 레트로 무드의 델리중앙역부터
단 1분도 똑같지 않은 카멜레온 같은 여행자의 거리 빠하르간지까지,
'매혹적'이라는 형용사는 델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지금 '혼돈의 도시' 델리를 여행해야 하는 이유.

글 임지영

석양에 물든 델리의 번화가

매혹적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보다 더 매혹적인 거리 풍경

오래된 건물과 형형색색 사리, 자동차와 소, 사람과 릭샤가 어지럽게 헝클어진다. 그런데 그 혼돈 속에 묵직한 질서가 자리하고 있다. 인도의 수도 델리의 모습이다. 인도 북부에 위치한 델리는 뉴델리와 올드델리로 구분된다. 델리는 갠지스 강의 지류인 야무나 강의 서쪽 기슭에 있으며, 펀자브 지방과 갠지스 강 유역간의 교통의 중심이어서 고대부터 이 지방의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을 이룬 곳이다. 17~18세기에 이슬람교 무굴 제국의 수도로 번영했고, 1912년 콜카타를 대신해 당시 영국령인 인도 전체의 수도로 정해져 더욱 발전한 곳이다. 1931년 남쪽 교외에 새로운 도시 뉴델리가 건설되면서 정식 수도가 되었다.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유적들이 집중되어 있는 올드델리는 고대 이래 7차례나 다시 건설되었다. 현재의 모습은 1638년 샤 자한제(帝)가 건설한 것이라 해서 '샤자하나바드'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당시의 유적으로는 빨간 사암으로 쌓은 성벽인 랄키라성이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궁전이 있다. 그 중 특히 보석을 박은 벽이나 대리석 기둥이 서 있는 디와니이하스트 궁전은 유명하다. 성의 남서에는 인도 최대 규모로 알려진 자마마스지드 이슬람교 사원이 있다.

1. 시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향신료들
2. 자마마스지드 광장을 지나치는 사람들
3. 현대적인 쇼핑몰이 즐비한 뉴델리 도심
4. 얼굴에 물감을 칠하는 전통 축제

성의 카시미리문(門) 부근에는 19세기 중엽 '세포이 반란'의 격전장이 되었던 자리에 들어선 기념탑도 있다. 동서로 뻗어나간 대로인 찬드니 초크 거리는 구시가지 중 가장 두드러진 번화가로, 구시가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각종 상점이 즐비한 재래시장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 상점이나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전통적인 인도 도시의 특색을 볼 수 있다. 붉은 요새 복합 건물이 세워질 당시에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달빛 광장'을 뜻하는 낭만적인 이름과 달리 시끌벅적한 풍경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다양한 가게와 노점들이 들어선 거리에는 무심한 표정으로 느릿느릿 지나가는 소, 인파를 비집고 달리는 사이클 릭샤의 경적 소리, 상인과 호객꾼으로 늘 북새통을 이룬다.

다양한 종교, 음식, 문화가 어우러진 여행자들의 메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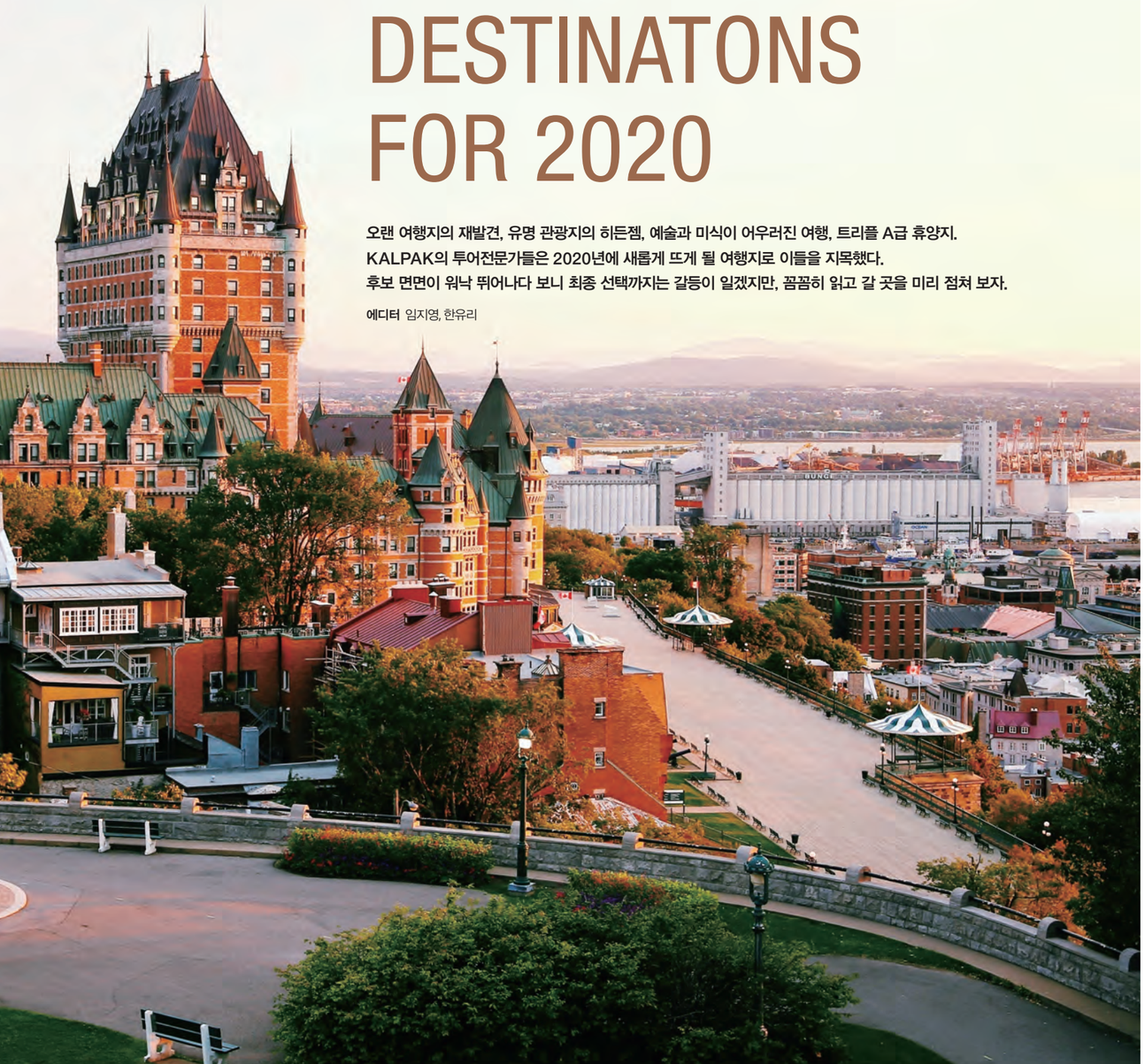
델리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중 하나는 여행자들의 메카로 손꼽히는 빠하르간지다. 빠하르간지의 메인 바자르는 각종 상점과 노점상이 밀집한 여행자의 거리다. 일용잡화부터 보석과 특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으며, 워낙 비슷한 상점이 많아 품질과 시세를 비교하며 합리적인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숙소가 밀집한 구역인 만큼, 다양한 가격대의 인도 음식점 뿐 아니라 중국 요리 전문점부터 이탈리안 키친까지 다양한 국적의 레스토랑을 즐길 수 있다. 쇼핑과 레크리에이션의 중심지 코노트 플레이스는 우리나라의 명동과 비슷한 분위기다. 겹겹으로 들어선 건물의 안쪽은 A~F 블록, 바깥쪽은 G~N 블록으로 나뉜다. 안쪽 블록에는 쇼핑센터, 고급 식당가, 은행, 여행사, 호텔 등이 많이 있다. 멀티플렉스에 버금가는 영화관과 우리에게 익숙한 패스트푸드점, 패밀리 레스토랑도 눈에 띈다. 뉴델리의 현대적인 면모를 보고 싶다면 셀렉트 시티로 향할 것. 셀렉트 시티는 화려하게 단장한 현대식 쇼핑몰로, 올드델리의 바자르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티베트인 집단 거주촌을 방문하면 우리나라의 만두, 수제비, 칼국수 등과 비슷한 티베트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인도 속 이색존(ZONE)인만큼 여행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종교의 영향으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이 따로 있으며, 육류를 재료로 하는 곳에서는 보편적으로 양고기와 닭고기를 많이 사용한다. 델리에는 크고 작은 축제가 연중 이어진다. 홀리, 두쎄라, 디왈리 등 모두 힌두교의 신을 기리는 축제로 곱게 성장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물감이 든 풍선을 던지거나 불꽃놀이를 즐기는 등 열정적인 축전을 벌인다. 다양한 종교와 인종, 삶의 방식, 신구(新舊)가 어지러운 듯 정갈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은 여행자의 눈에 지울 수 없는 그림으로 아로새겨진다.

여행이 바뀐다! 2020 주목해야 할 여행지

THE HOTTEST DESTINATONS FOR 2020

**오랜 여행지의 재발견, 유명 관광지의 히든젬, 예술과 미식이 어우러진 여행, 트리플 A급 휴양지.
KALPAK의 투어전문가들은 2020년에 새롭게 뜨게 될 여행지로 이들을 지목했다.
후보 면면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최종 선택까지는 갈등이 일겠지만, 꼼꼼히 읽고 갈 곳을 미리 점쳐 보자.**

에디터 임지영, 한유리



#1 함께 걸을 수 있다면 도깨비라도 상관 없다! 캐나다 퀘벡

성곽으로 둘러싸여 요새화 되어 있는 성곽 도시인 '메이플시티' 퀘벡은 도시 전체가 198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도시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미국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성곽이 탄생했다. 퀘벡시티는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참 좋은 곳이다. '작은 프랑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퀘벡시티는 프랑스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길거리의 간판과 상품들, 이 곳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모두 프랑스어다. 캐나다에서 가장 깊은 역사를 가진 광장과 성곽 안의 구불구불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음을 사로잡는 예쁜 카페와 형형색색 꽃들로 장식된 창문, 파스텔톤 건물, 개성 가득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고 어느덧 마음은 부푼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고풍스러움이 가득한 낭만 도시를 걷다 보면 다치고 지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르르 아문다.

GOOD TO KNOW

#2020년 전세기 운항 예정　#tvN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사계절 낭만적인 메이플로드

DO NOT MISS!

페어몬트 샤토 프롱트낙
Fairmont Le Chateau Frontenac

윈스턴 처칠 수상부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 왕비 등 세계의 유명인사들이 묵은 곳. 청동 지붕과 붉은 벽돌로 지어진 퀘벡 시티의 랜드마크로 세인트 로렌스 강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2 신비로운 해안도시의 민낯을 볼 마지막 기회!
베트남 퀴논

다낭과 냐짱 사이, 베트남 중부를 여행하는 이들이 중간에 잠시 들르거나 머무는 도시. 베트남 퀴논 앞에 붙는 수식어는 늘 그랬다. 하지만 '남들이 많이 안 가본 데'에 먼저 발 들이는 것을 좋아하는 '트래블 얼리어답터'라면, 혹은 인파를 피해 조용히 휴양할 수 있는 휴가지를 찾고 있다면 이 지명을 새겨 두자. 공사 중인 고속도로가 뚫리고 이 도시와 세계를 '직항'으로 연결해줄 퀴논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신비로운 해안 도시의 청순한 민낯을 볼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행자들이 중부의 다른 휴양지보다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퀴논을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마을을 따라 완만하게 형성된 42㎞ 길이의 해안선, 그 안에 숨은 비밀스러운 해변 때문. 그 중에서도 인적이 드물어 물이 맑은 키코 비치는 가장 인기 높은 목적지다. 풍광의 절정은 섬의 북쪽, 기암절벽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천장 없는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면 '쪽빛' '초록' '파랑' 색이 층층이 이어진 기묘한 물색이 눈을 사로잡는다. 에오져와 키코 사이, 중간 즈음엔 산호 지대가 있다. 이곳이야말로 내년에 가장 유망한 스노클링과 스쿠버다이빙 스폿이 아닐까?

GOOD TO KNOW

#2020년 2월 전세기 취항 #챔파 왕국의 유적 #세계 최고의 물빛

#3 엑기스만 쏙 뽑아 체험하는 '맞춤형 알프스'
이탈리아 돌로미티 국립공원 & 스위스 그라우뷘덴

이탈리아의 웅장하고 거대한 알프스를 상징하는 돌로미티 국립공원과 스위스에서 가장 큰 주이자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무대로도 유명한 그라우뷘덴을 함께 둘러 보는 알프스 특급을 전문가들은 2020 놓치지 말아야 할 여행지로 꼽았다. 알프스 산맥을 걸치고 있는 돌로미티는 그림 엽서에나 등장할 것 같은 완벽한 풍광을 자랑하는 곳. 알프스 초원을 달리는 열차로 유명한 그라우뷘덴은 인터라켄, 루체른을 뒤이을 스위스의 떠오르는 명소다. 여기에 타미나 계곡을 낀 휴양도시 바트라가츠에서의 '청정' 스파타임까지 어우러지면 최고의 알프스 여행이 완성된다.

GOOD TO KNOW

#이탈리안 알프스 돌로미티 국립공원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무대
#스파와 온천의 성지 바트라가츠

#4 우정과 와인, 여행지는 오래될수록 좋다
말레이시아 랑카위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 공원이 있는 말레이시아 랑카위가 여기에 해당하는 여행지다. 이미 귀에 익숙한 여행지라 생각하기 쉽지만, 다시 가도 가슴 뛰는 설렘을 마주할 수 있는 이색 여행지이기도 하다. 부드러운 모래사장의 판타이 체낭비치와 환상적인 선셋을 볼 수 있는 탄중 루 비치,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요트정박지와 텔라가 하버 파크, 보트 투어가 가능한 맹그로브 숲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길림 지오포레스트 파크(Kilim Geoforest Park)까지 랑카위에는 남녀노소 모두 지루함 없이 즐기기 좋은 코스들이 즐비하다. 그 중에서 특히 '강추'하는 건 페리를 타고 산호초 섬 파야섬(Payar Island)으로 떠나는 코랄투어. 스노클링을 하며 '물반 고기반'의 바다 속 풍경을 직접 볼 수 있고, 귀여운 아기상어들도 만나볼 수 있다. 리조트나 스파도 선택의 폭이 넓어 여행 스타일에 따라 숙소를 선택하고 스파를 받으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GOOD TO KNOW

#물반 고기반 스노클링 천국 #알고 보면 섬 전체가 면세구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5 감동도 통역이 되나요?
프랑스 브르타뉴

프랑스 여행을 자주 한 '프잘알(프랑스를 잘 아는 사람)'들은 프랑스 여행의 최고봉으로 '브르타뉴'를 꼽는다. 북서부의 반도인 브르타뉴는 프랑스에서 가장 지역색이 뚜렷한 곳이면서 모험가의 고장으로 통한다. 프랑스 북서부에 있는 레지옹(Region)으로, 우리에게는 브리타니(Brittany)라는 영어 지명으로 더 친숙하다. 브르타뉴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고풍스러운 중세 골목, 낯선 골목의 익숙한 광경은 흥분과 아늑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빼어난 자연 경관, 유네스코가 인정한 문화, 그리고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칼바도스와 사이다, 와이너리 체험 등 역사가 스케치하고 현재가 채색한 풍경들은 시선은 물론 영혼까지 사로잡는다.

GOOD TO KNOW

#성벽으로 둘러싸인 해적도시 생말로 # 신비한 안개숲 브로셀리앙드
칼바도스 등 독특한 미식문화

#6 뭉치면 뜬다!
캄보디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손꼽히는 '앙코르와트'. 그리고 세계 10대 일출 명소로 선택 받은 '프놈바켕 사원'. '여행스타그램'의 인기 명소들이 있는 나라 캄보디아도 2020 유망 여행지에 이름을 올렸다. 볼거리 많은 캄보디아를 200배 즐길 수 있도록 KALPAK에서는 아만사라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 중이다. 아만사라는 1960년대 시아누크 전 국왕의 영빈관이었던 곳으로, 내전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지만 2002년 아만 리조트 그룹에 의해 특급 리조트로 거듭났다.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리조트를 통해 만나는 캄보디아. 최고의 투숙객 평점을 자랑하는 아만사라와 함께 하는 캄보디아 여행이야말로 찬란한 문화유산을 생생한 감동으로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GOOD TO KNOW

#죽기 전 가봐야 할 명소 앙코르와트　#세계 10대 일출명소 프놈바켕
#국왕의 영빈관이었던 아만사라 리조트

#7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미국 보스턴

미국의 수많은 도시들 중 꼭 한 곳을 봐야 한다면 단연 첫 손가락에 꼽혀야 할 도시. 미국에서 가장 '미국다운 도시'로 형용 되는 보스턴은 역사와 언약이 살아 숨쉬는 동부 아이비리그의 핵심 도시다. 하버드, MIT 등 세계 유명 대학들과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명소들도 많지만, 시대를 거스른 골목, 마켓, 이벤트 등 타임머신을 타고 신나는 과거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주는 장치들도 풍성하다. 뉴욕과 워싱턴, 나이아가라를 아우르는 미국 동부 여행을 떠나기에도 아주 좋은 거점이다. 뉴욕의 부호들이 즐겨찾는 동부의 스위스 '모홍크'와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인 로드 아일랜드도 근거리에 있어 여정을 더욱 다채롭게 장식해 준다.

GOOD TO KNOW

#직항 취항으로 짧아진 하늘길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 '로드 아일랜드'
#미국의 스위스 '모홍크'

#8 에메랄드바다 위 헐리웃스타들의 은신처
호주 해밀턴 아일랜드

순백색 모래밭과 에메랄드빛 바다, 풍부한 해양 생물이 있는 '하모(Hamo)'(해밀턴 아일랜드의 애칭)는 74개의 멋진 섬들로 이루어진 휘트선데이즈(Whitsundays)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섬이다.
세계적 미경(美景)으로 꼽히는 석양과 더불어, 인근의 화이트헤븐 비치(Whitehaven Beach)부터 하트 리프(Heart Reef) 및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 등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낙원들을 둘러볼 수 있다. 리프 뷰 호텔부터 세련된 요트 클럽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으며, 오프라 윈프리, 테일러 스위프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묵어간 퀄리아(Qualia)도 이곳에 있다. 세계적 수준의 5성급 럭셔리 리조트는 섬에서 자란 허브 및 가니쉬와 함께 사슴 고기, 전복, 굴 요리 같은 특급 메뉴들로 머무는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장식해 준다.

GOOD TO KNOW

#헐리웃스타들의 선택 퀄리아　#휘트선데이즈의 아름다운 석양
#럭셔리 요트 클럽

be our
Muse
Inspired by KALPAK

HAPPY MUSE CITY

차오프라야강에서 즐기는 애프터눈티
황금빛 파노라마의 루프트탑 인피니티풀
황혼에서 새벽까지 보석처럼 빛나는 도시
행복해지고 싶다면 방콕으로 떠나세요!

한진관광 여행상담 Muse 프랑스, 체코, 스페인 02. 726. 5533~4 / Muse 하와이, 방콕, 홍콩, 도쿄 02. 726. 5535~6

외딴 섬에서 마주한 유토피아

FLY TO UTOPIA

에디터 임지영

우리를 실어 나를 자주색 경비행기가 도착했다. 태평양 북서부, 괌에서 로타(Rota)라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작은 섬으로의 비행. 승객은 나를 포함해 단 네 명이었다. 긴장과 기대 속에 생애 최초의 경비행기 투어가 시작되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이십 오분 간의 비행은 경이(驚異) 그 자체였다. 태평양이 그토록 푸른 바다라는 걸 난생 처음 알았다. 잠자리 비행기에서 내려밟은 땅 로타는 무인도라 해도 믿을 만큼 완벽한 태곳적 자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발자국 없는 해변을 걸어봤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열대과일을 맛봤다. 붉은 히비스커스가 춤을 추는 해변을 거니는 것은 천국을 노니는 것과 같았다. 토머스 모어가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그린 상상의 섬 '유토피아'가 바로 이런 섬이 아니었을까? 이후로도 잔상은 꽤 길고 깊었다. 그때 깨달았던 것 같다. 모든 순간이 부질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님을. 어떤 순간은 영원을 지배할 수도 있음을.

물 따라 모래 따라 전설 따라 누빈 제국

THE EGYPTIAN FANTASY

볼 것도, 배울 것도, 체험할 것도 너무나 많다.
최초의 문명이 태동한 곳이자 최고의 영화를 누린 고대 제국을 물 따라 모래 따라
그리고 아직 베일에 쌓인 채 다 드러나지 않은 전설 따라 누볐다.
이집트에서는 내딛는 걸음 걸음마다 신화이자 마술 피리였다.

에디터 임지영 / **사진** 이용기 / **취재협조** 이집트내 해당 플레이스들

KALPAK이 제안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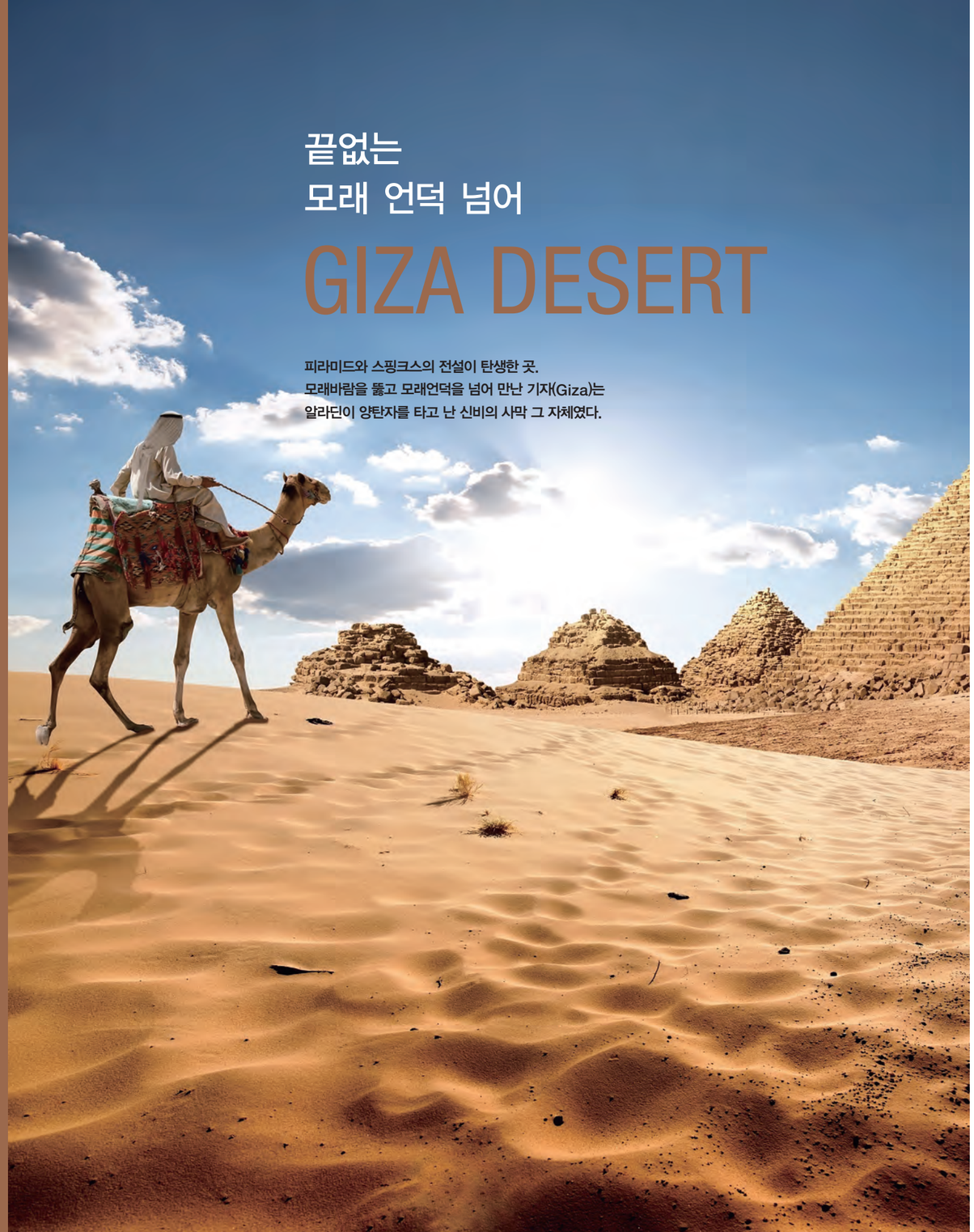
[전세기 프레스티지 탑승]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안식처, 이집트 9일

고대 왕족들과 전사들이 살아 숨쉬었던 신들의 나라 이집트.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통해 재현된 신화는 황폐한 결들로 남아 과거의 문명을 더욱 빛내주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숨쉬어 온 수도 카이로는 특별한 활기와 생동감을 자랑합니다. 신과 사람이 살아 숨쉬는 이집트를 여행하며 그 속의 우리를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행기간 9일 / **출발** 2월1일(1회)

일정 카이로(1)–룩소르(1)–크루즈(4)(룩소르–에드푸–콤옴보–아부심벨–아스완)–
아스완–카이로(1)–기내(1)

가격 ₩16,000,000~ / **문의** 02.726.5704



끝없는
모래 언덕 넘어

GIZA DESERT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전설이 탄생한 곳.
모래바람을 뚫고 모래언덕을 넘어 만난 기자(Giza)는
알라딘이 양탄자를 타고 난 신비의 사막 그 자체였다.**

1.
이집트 전통음식인
메짜세트

2.
피라미드가 보이는
메나하우스

MARRIOT MENA HOUSE CAIRO
6 Pyramids Road Giza,
Giza Governorate
Tel : +20 2 33773222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caimn-marriott-mena-house-cairo

피라미드 앞에서 즐긴 따끈한 메제요리

기자(Giza) 사막으로 향하던 아침,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물감을 푼 듯 새파랗던 하늘은 무표정한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사막의 비라. 빈곤한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사막에 비가 내리면 모래 폭풍이 잠들까? 질퍽해진 모래에 낙타가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떨어지는 비를 보며 가늠할 수 없는 사막의 풍경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이 비가 그쳤다. 비가 내린 후에도 사막은 불변의 모습이었다. 신부가 조심스레 베일을 걷어 내듯 조금씩 얼굴을 드러낸 이집트 제3의 도시 기자는 현대의 도시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삼각으로, 혹은 네 팔로 버티며 이곳을 지켜온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때문일까. 이곳만은 세월이 완벽히 비껴간 것 같았다. 인력거와 건초더미, 모래를 뒤집어쓴 모스크와 다리를 지나 메나 하우스(Mena House)로 향했다. 이집트가 유럽의 식민지였을 때부터 이곳을 지켜온 메리어트 메나 하우스는 그레이트 피라미드가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손을 뻗으면 금방이라도 닿을 듯 가까이에서 이집트 최고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감상하며, 아랍의 전통적인 전채 모듬 요리인 메제(Mezzeh)를 주문했다. 팔라펠과 치즈튀김, 소시지, 소고기야채롤이 갓 짜낸 열대과일 주스와 함께 선보였다. 주스의 층이 어찌나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던지, 꼭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컬러 샌드'를 유리컵 속에 쌓아놓은 것처럼 보였다. 빵은 고추를 넣은 매콤한 팔라펠을 한 입 베어 물고 주스를 한 모금 들이켰다. 매운 맛과 단 맛의 조화가 꼭 무섭고도 로맨틱한 아라비안 나이트 같았다. 그제야 야외 수영장 물에 비친 피라미드의 그림자가 들어왔다. 수상의 피라미드가 수중의 피라미드와 완벽히 대칭을 이루고 있는 모습. 전율이 흐르는 장관이었다.

1

2

3

울퉁불퉁 낙타 등에 올라앉아 마주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기자 고원 곳곳에 흩어진 유적지를 둘러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낙타를 타고 걷는 것 아닐까? 그 옛날 아라비아 반도 내륙에 살았던 베두인(Bedouin)들이 그러했듯 말이다. 베두인의 지혜를 빌어 낙타를 타고 건너는 사막 트레킹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사막의 길잡이가 되어줄 가이드 아메르가 낙타 두 마리와 말 한 필을 이끌고 나타났다. 야자수처럼 껑충한 낙타는 키가 족히 4미터는 되어 보였다. 베두인 의상을 입은 도우미의 도움을 얻어 낙타 등에 오르니 크기가 다른 피라미드는 물론, 뽀얀 먼지 속 기자 시내까지 한 눈에 들어왔다. "낙타의 움직임에 그냥 몸을 맡겨요. 낙타를 잘 타는 지름길이랍니다." 말에 올라탄 아메르의 가르침대로, 낙타의 출렁임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 그렇게 걸은 지 삼 분이나 지났을까?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하게 서 있으리라 생각했던 피라미드가 눈 앞에 거대한 석상으로 펼쳐졌다. 3개의 피라미드 앞에 당도했을 때 상상을 뛰어넘는 피라미드의 크기와 규모에 그대로 압도당하고 말았다. 이집트를 여행하며 만나게 되는 유적은 BC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집트에는 총 30개의 왕조가 번성했는데 이중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건 3왕조 때, 대규모 피라미드가 건설된 시기도 바로 3~4왕조 때다. 특히 4왕조의 파라오인 쿠푸(Khufu)왕과 카프라(Khafra), 멘카우라(Menkaura)왕 시대에 지어진 피라미드는 대부분 기자 고원의 사막에 모여 있다.

3.
낙타를 타고 즐기는
사막 낙타 트레킹

4.
긴 사막 여정을 떠나는
베두인들

5.
선셋 사막트레킹

6.
화려한 빛으로 물든
기자와 메나하우스

하늘로 오르는 왕을 위한 계단

이집트에서 발견된 70여개의 피라미드 중 역사적으로 기자 피라미드를 가장 빼어난 것으로 손꼽는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었어요." 아메르의 손이 가장 큰 쿠푸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가리킨다. 쿠푸 피라미드의 현재 높이는 137미터. 원래 147미터였던 것이 위의 7단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재의 높이가 되었다. 무려 230만개의 돌을 사용해 210단이나 쌓아 올렸으며, 완성하기까지는 20년이 넘게 걸렸다. 역사학자들의 가설대로 피라미드는 왕이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계단 역할을 했던 걸까? 아니면 왕조의 번영을 바라는 왕의 무덤이었을까. 궁금증을 풀 새도 없이 낙타는 구불구불 언덕을 유연하게 내려와 우리를 단 하나의 완벽한 돌로 만들어진 스핑크스 앞에 내려놓았다. 피라미드를 지키는 역할, 그러니까 왕릉의 '보디가드'쯤 되는 스핑크스는 높이만 20m에 달하는 거구였다. 가까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내 얼굴만 하게 잡히는 스핑크스를 배경 삼아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다. 시각적 파노라마 못지 않게 압도적이었던 바람 소리를 사진에 담을 수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쉬웠다.

4

5

6

GLORY
OF THE EMPIRE

그리스 신화 속 스핑크스는 여행자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답을 맞추지 못하면 목숨을 빼앗는 괴물로 그려져 있다.
오늘날 여행자들은 스핑크스 앞에서 즐겁게 사진을 찍고
거대한 피라미드 앞에서 고대 이집트 제국이 누렸을 영광을
어렴풋이 가늠해볼 뿐이다.

7

7.
장식이 인상적인
주전자와 잔,
쟁반 세트

8.
여신 바스테트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고양이

9.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있는
전설의 여신 이시스

10.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리와 빛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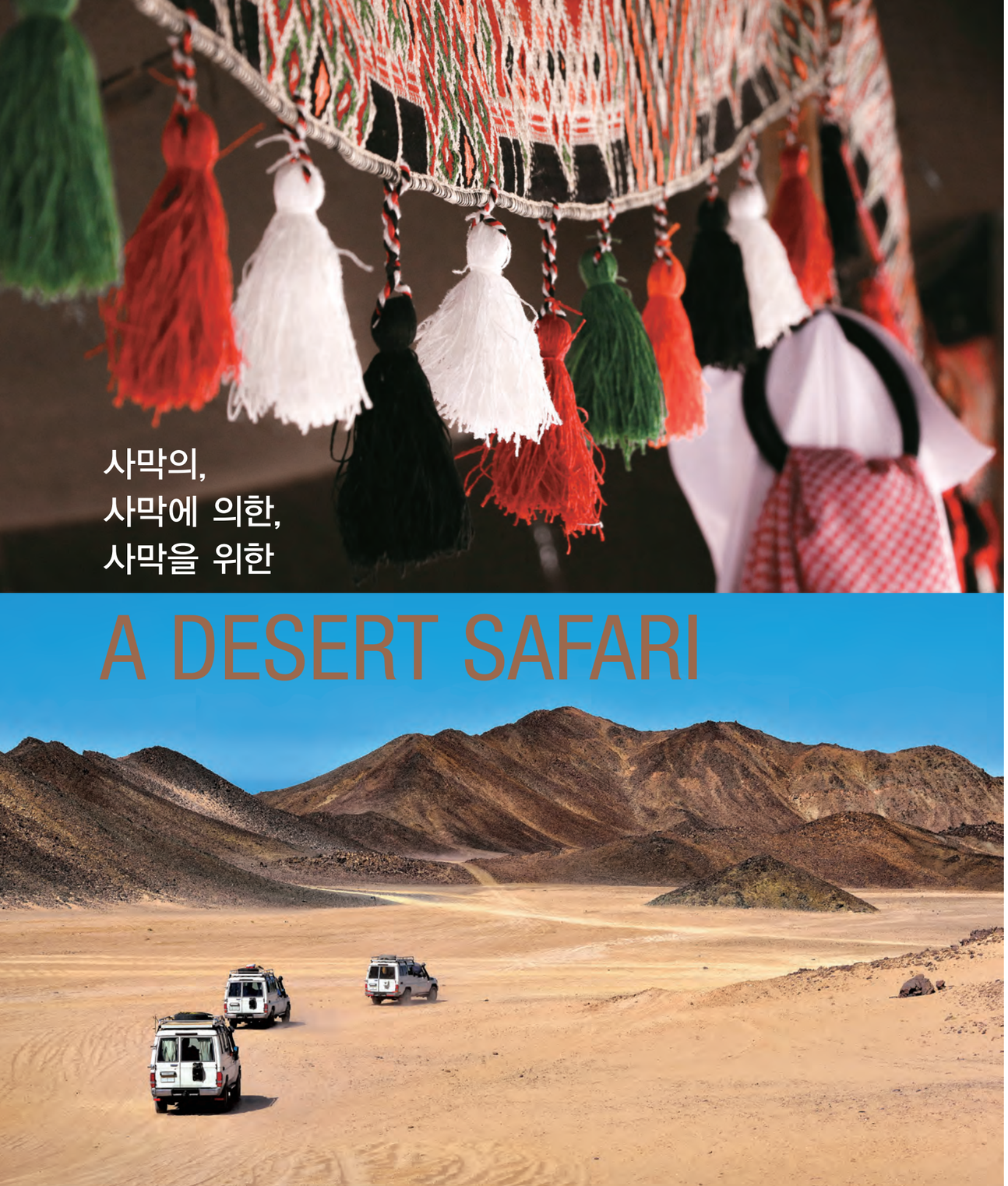
9
10

밤하늘의 빛과 그 마법의 빛을 닮은 장신구들

피라미드 산 사이로 지는 강렬한 노을 감상을 끝으로 낙타 트레킹을 마쳤다. 스핑크스를 마주하고 있는 광장에는 하얀 철제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다. 야간에 펼쳐지는 '라이트 앤 사운드' 쇼를 보기 위한 자리다. 1798년 이집트 원정을 나섰던 나폴레옹은 피라미드를 보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며 평생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220년이 지난 지금, 무수한 여행객들이 피라미드를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자의 네크로폴리스는 여전히 불가사의한 존재로 남아 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나폴레옹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해가 지고 난 후 호텔 루프트 톱에 앉았다. 고요한 낮과 달리, 사막의 밤은 바람이 거세다. 잠시 후 명상 음악으로 들어도 무방할 정도로 차분한 배경 음악과 함께 피라미드에 하나 둘 불이 켜진다. 정면을 응시하는 스핑크스에도 불이 들어온다. 칠흑 같은 사막의 어둠 속, 찬연히 빛을 발하는 고대 유적이 들려주는 이집트 이야기는 기자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하이라이트다. 나일강 하류에서 번성한 고대 이집트 문명은 수 세기를 앞서 있었다.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던 문화도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 쇼가 끝나고, 다채로운 이집트 장신구 구경이나 할까 싶어 머큐어 카이로 르 스핑크스 호텔(Mercure Cairo Le Sphinx Hotel)로 향했다. 카르나크 신전에서 이름을 딴 카르나크 주얼리(Karnak Jewelry)에서 사막의 푸른 밤하늘을 닮은 블루스톤 고양이와 황금색 클레오파트라 상을 영접(?)했다. 화려함 일색인 상점을 자랑스러운 듯 소개하던 숍의 오너가 지니 램프를 연상시키는 황금색 주전자와 찻잔에 애플시나몬 티를 담아 대접해주었다. 향긋한 티는 이집트식 '웰컴'이라고 했다. 고대 이집트에서 보석과 장식품은 왕족과 귀족들의 필수품이었다. 수메르인을 능가했던 이집트의 섬세한 세공에 감탄하는 사이, 사막의 달이 기울고 있었다.

8

KARNAK JEWELRY
16 Pyramids,
1 Alexandria Desert Rd,
Kafr Nassar, Al Haram,
Giza Governorate
Tel : +20233776444
www.karnakjewellery.com



사막의,
사막에 의한,
사막을 위한

A DESERT SAFARI

사막의 또 다른 이름은 여백이다. 아니 우주다.
베두인들의 '사막 살이'를 체험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보름달이 뜬 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인생을 아끼며 살자고 다짐했다.

1

2

1.
곤로에
차를 끓이는 베두인
2.
사막의 낭만적인
'캔들 나이트'

기자에서 베두인이 운전하는 4WD 지프차로 5시간을 달려 이집트 서부의 깊은 사막인 베두인 마을 바하리야 오아시스에 도착했다. 흑사막, 백사막, 크리스탈 마운틴. 사막은 다 같은 사막인 줄 알았는데 이름은 제각각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사막이야말로 베두인들에게는 상상의 나래를 펴기 좋은 도화지 같은 곳이었을 터. 총 네 시간에 걸쳐 사막 곳곳을 돌아보고 백사막의 야영지를 오늘의 잠자리로 정했다. 베두인들이 설치한 천막 안에 미리 준비해간 침낭을 펼치는 동안 해가 기울고 어둠이 찾아왔다. 베두인 터번을 두르고 음식을 준비하던 모하메드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밤에는 보름달이 뜰 것 같은데요?" 사막의 어둠과 적막에 적응하며 살았던 베두인들에게 보름달은 축복이었다. 보름달이 뜨면 베두인들은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거나 음식을 나눠먹으며 보름달 파티를 벌였다. 흔한 보름달조차 이들에겐 신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다. 저녁 메뉴는 다름아닌 '만샤프'였다. 만샤프는 밥 위에 양이나 염소고기를 얹고, 전통 요구르트인 슈르브를 끼얹어 슈라키빵과 함께 먹는 베두인들의 전통 음식이다. 베두인식 만찬을 즐기는 동안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천막은 수 많은 별들이 새겨진 '밀리언 스타 호텔'로 변신했다. 음식 냄새에 말로만 듣던 사막여우들이 출몰했다. 슈라키빵을 뜯어 던져주자 개처럼 덥썩 무는 모습이 친근했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사막 여우를 철학적이고 친근한 동물로 묘사했다. 그의 묘사가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사막여우와의 조우를 통해 실감할 수 있었다. 모닥불은 활활 타오르고 밤은 깊어만 갔다.

이렇듯 깊고도 넓은 세상을 접한 적이 있었던가. 사막의 밤은 인생을, 우주 속 나를 성찰하게 만들었다. 여백은 아름답다. 채우는 것도 좋지만 비우는 것에서 오는 위로가 있다. 공간도, 시간도 여백과 여유가 있을 때 진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다클라 사막에서 맞은 사파이어의 밤

A SAPPHIRE NIGHT AT DESERT SACTUARY

깊은 다클라 사막에서 알 타르파 롯지 같은 곳을 만나는 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반가운 일이다. 모든 것이 귀한 황량한 사막에서 만끽하는 럭셔리는 신기루에 가까울 만큼 완벽하다.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 생추어리 롯지

카이로 공항에서 한 시간, 단 여덟 명만이 탈 수 있는 호커 제트기를 타고 다클라 공항에 도착했다. 사막 한 가운데에 들어선 공항은 오래 전 본 영화 〈바그다드 카페〉의 오프닝 씬을 떠올리게 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롯지에서 보낸 포터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짐을 맡기고 사막의 샛노란 모래와 대비를 이루는 클래식한 검은색 지프에 올라탔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메릴 스트립이 된 기분이었다. 차로 이십 분쯤 달렸을까.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사막에 고대 유적지를 연상케 하는 테라코타 건물이 펼쳐졌다. 사하라 사막의 중요한 오아시스 중 하나였던 다클라 오아시스(Dakhla Oasis) 생추어리의 알 타르파 롯지 앤 스파(Al Tarfa Lodge and Spa)였다. 오아시스라는 천혜의 자연 속에 들어앉은 롯지는 마치 오래 전부터 그곳의 일부로 존재해온 양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푸른 야자수와 반짝이는 풀장, 황홀할 정도로 앤틱한 침실과 사막을 품은 사랑스러운 발코니… 아라비아의 로맨스가 펼쳐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무대가 없을 듯 싶었다. '고대로 떠나는 가장 완벽한 어드벤처. 진정 영혼을 울리는 하룻밤.' 태틀러 트래블 가이드의 묘사는 하나도 과장된 게 없었다. 하늘을 캐노피 삼은 풀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독을 씻어내고 싶은 생각에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야외 풀은 친환경적으로 데워져 있었다. 물을 침대 삼아 누우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진공 상태라 해도 이보다 더 조용할 수 없을 만큼 주변은 고요했다.

1.
주변에
볼거리가 많은
다클라 오아시스
생추어리

2.
이집트
전통양식으로 건축된
알 타르파 롯지

은하수의 밤, 스파에서 펼친 상상의 나래

하얀 전통의상에 터번을 두른 남자가 시원한 과일 음료와 함께 타월을 가져다 주었다. 롯지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프라이빗 서번트 서비스였다. 멀리서 꾸란 소리가 들려올 무렵, 고기와 야채를 굽는 그릴 냄새가 롯지를 맛있게 감싸기 시작했다. 다클라 오아시스와 고대 유적이 360도 파노라마로 들어오는 발코니에 서서 사막의 황혼이 선사하는 숨막히는 장관을 감상했다. 이곳에 머물렀던 쥐리히 출신의 디자이너 수잔느 폰 마이스가 왜 '이집트가 자랑스러워 해야 할 최고의 유산'으로 꼽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브라힘에게 야자수 그늘이 있는 모래 정원에 저녁을 차려줄 것을 부탁했다. 다양한 그릴 요리와 달달한 과일주로 근사한 테이블이 차려졌다. 이슬람 패턴의 램프는 저녁 식탁의 완벽한 마무리였다. 식사를 마치고 아카시아 향이 풍기는 모래 정원을 산책하다 이곳의 시그니처인 스파로 발길을 향했다. 은은한 램프의 빛이 감도는 다르 알 하나(Dar Al Hana) 스파만큼 사막의 밤에 잘 어울리는 장소가 있을까? 스파 룸에서 바라본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에는 초승달이 살포시 걸려 있었다. 나룻배 같은 그 달 어디쯤에 걸터앉은 세헤라자데 공주가 흥미로운 천일야화를 들려줄 것만 같은 푸르고 빛나는 사파이어의 밤이었다.

3. 사막에 차려진 완벽한 야외의 라운지
4. 색다른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데이베드
5. 램프, 캔들과 함께 하는 모래 위의 디너

불모지라는 뜻의 아랍어 '사흐라'에서 비롯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사하라 사막은 낭만적인 캠핑과 베두인 라이프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사하라 사막 깊은 곳에 위치한 다클라 오아시스는 '사하라의 보석'이라는 별명처럼 수많은 별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푸른 바다 위
태양은 가득히

SOMA BAY,
SURFER'S PARADISE

프랑스에 리비에라가 있다면, 이집트에는 소마 베이가 있다.
소마 베이는 그런 곳이다.
영화 속, 또는 신기루에나 등장할 법한 마법의 오아시스 말이다.

1

1.
우아한 테라스가 있는
켐핀스키 호텔의 라구나뷰 룸

2.
맞춤형 뷔페를 제공하는
라구나 클럽 라운지

세상에 존재하는 완벽한 신기루

후르가다에서 남쪽으로 45킬로미터. 바다의 청량한 공기가 포근한 내륙의 공기로 바뀔 무렵 다이버들의 천국이라는 소마 베이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수 개의 특급 리조트 호텔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원, 골프장, 다양한 액티비티 공간이 천혜의 홍해 바다와 어우러진 소마 베이는 이집트 동부 해안에서 요즘 가장 '핫'한 만이다. 천일야화의 모래 궁전을 연상시키는 켐핀스키 소마 베이에 짐을 풀었다. 홍해의 해변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사막과 어우러져 지평선 저 끝까지 펼쳐진 듯 보였다. 진주빛 모래 언덕 위에서 야자수들은 바람에 춤을 추고 파도는 부드럽게 속삭이고 있었다. 1798년 이집트에 원정한 나폴레옹의 군사들은 사막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했다. 아름다운 오아시스와 야자수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사막에서 힘들게 행군하던 프랑스군에게 오아시스는 간절한 소망이었을 테지만 이들은 곧 야자수나 호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리 다가가도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처음 맞닥뜨린 기이 현상은 다름아닌 신기루였다. 신기루는 공기가 만드는 신비한 요술현상이다. 나폴레옹군에 동행했던 수학자 가스파르 몽주가 이 현상의 원인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신기루가 사막에 접해 있는 더운 공기층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말이다. 소마 베이는 사막의 더위에 지친 나폴레옹군이 만면희색 했을 직한, 아니 이 거대한 사막 제국에 입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오아시스였다.

2

카이트 서퍼와 카멜 라이더의 천국인 마리나

다음날 아침, 알람을 맞춰놓고 5시 20분에 기상했다. 휴양지에서는 예외적인 일이지만, 일출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켐핀스키 호텔 매니저의 팁을 잊지 않은 까닭이었다. 한번쯤, 이집트의 일출을 보고 싶었다. 5시 40분. 바다 속에서 밀려나온 해는 하늘을 퍼플로, 코발트블루로, 푸시아로 물들이더니 이윽고 소마 베이에 찬란한 황금빛 아침을 선물했다. 프라이빗 라운지인 라구나 클럽 라운지(Laguna Club Lounge)는 이른 아침부터 크레페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호텔 곳곳을 둘러보던 매니저 사비나가 우리를 발견하고 정원을 가로 질러 클럽 라운지로 오더니 오늘의 계획을 물었다. "소마에는 중동 최초의 챔피언쉽 골프 코스가 있어요. 스쿠버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비치 클럽도 있고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스펙터클한 윈드서핑과 카이트서핑도 가능해요. 원하는 건 뭐든 얘기해요. 지니 램프처럼 다 들어줄 테니까."
이집트 최고의 스파라는 캐스케이드 스파 앤 탈라소 센터(Cascades Spa & Thalasso Centre)에서 홍해 해수 트리트먼트로 느긋한 휴식의 시간을 가진 후 오아시스 정원을 지나 소마베이 마리나로 향했다. 카이트 서핑에 도전해볼 참이었다. 낙타 두 마리가 베두인 의상을 걸친 남자를 따라 느긋하게 해변을 걷고 있었다. 돛 대신 연을 단 작은 보트들과 곳곳에서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라탄 데이베드.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해변의 낙타. 그 조합이 어찌나 신기한 지 자꾸만 돌아 보게 되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신기루이기라도 하듯.

4

5

3

—

3.
베두인 텐트에서
영감을 얻은
텐트형 라운지

4.
캐스케이드 탈라소 스파

5.
소마베이가 한눈에 보이는
프레지덴셜 스위트

6.
홍해 바다가 있는 소마 베이는
윈드서핑, 카이트서핑 등
해양스포츠의 천국이다.

7.
마리나에서는
낙타를 타고 해변을 둘러보는
트레킹도 가능하다.

6
7

홍해, 이토록 푸른 바다

EXTREMELY BLUE ‘RED SEA’, HURGHADA

이집트 동부의 모래사막을 넘자마자 짙푸른 해변을 만났다. 느닷없다. 색이 바랜 지리한 사막 끝에 만난 후르가다의 푸른 바다는 너무도 강렬하다. 유럽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이집트 여행지로 꼽히는 후르가다는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을 나누고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홍해의 순풍을 간직한 땅이다. 흑백 시대에서 컬러 시대로 넘어온 것 마냥 거리 풍경은 다채롭다. 사막에서 만났던 베두인 청년들은 낙타나 지프차 대신 요트를 타고 갑판 위에서 구릿빛 팔뚝을 자랑한다. 요트 위에서는 러시아, 미국, 북유럽 등 다양한 언어와 만국의 수영복 패션이 쏟아진다. 나스르 거리가 가로지르는 후르가다 다운타운은 제법 번잡하다. 고급 외제차들이 오가고 힙한 레스토랑들이 넘쳐난다. 회교 국가라 음주가 금지돼 있지만 노천 식당에서는 ‘스텔라’와 ‘사카라’ 같은 간판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이곳이 정말 홍해일까? 가슴 시리도록 푸르고 투명한 이 바다가.

MUST TRY!

SEAFOOD 이곳의 씨푸드는 향부터 다르다. 특색이 있다. 다양한 향신료에 레몬이 곁들여진다. 씨푸드 샐러드도 맛있지만 아랍식으로 굽는 그릴드 씨푸드도 감칠 맛이 난다.

SHOPPING 토속적인 핸드메이드 공예품부터 고가의 주얼리까지, 마리나 쇼핑 아케이드를 둘러보자. 특히 바다를 닮은 푸른 터키석 주얼리에는 누구라도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ARABIC CAFÉ 멋진 전통 의상을 입은 남자들이 달달한 딜라이트와 함께 아라비카나 진한 터키쉬 커피를 서빙하는 전통 아라빅 카페에 들러보자. 커피뿐 아니라 무드도 달콤하다.

YACHT 마리나에는 개인적으로 빌릴 수 있는 크고 작은 요트들이 꽤 많다. 유난히 잔잔하고 푸른 홍해 크루즈의 꿈, 후르가다 마리나에서 실현해보면 어떨까?

PIRATE SHIP 마리나 한가운데에는 정체불명의 깃발을 단 커다란 목조선이 있다. 낭만적인 디너와 함께 인근을 항해하는 해적선인데 시설이 꽤 괜찮다.

낭만과 모험의 끝,
나일강 크루즈

A DELUXE NILE RIVER CRUISE

강에는 역사와 문명, 자연과 삶 등 다양한 풍경이 깃들어 있다.
게다가 문명의 발상지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집트 여행에서 나일강 크루즈 체험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1.
넓은 루프트톱 데크 위에
펼쳐진 풀장
2.
리버뷰 테라스의
낭만적인 디너
3.
탁 트인
오션 뷰의 스위트룸
4.
크루즈 여정에
포함되는
룩소르 신전

크루즈만의 즐거운 의식, 애프터눈티와 전통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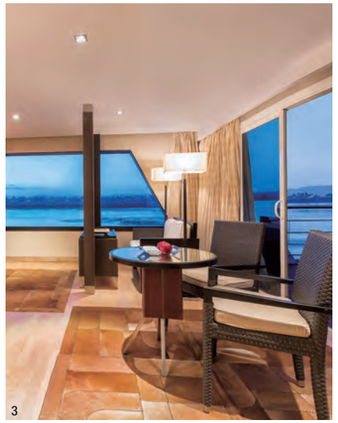
이집트 마지막 왕조의 수도였던 아스완. 파문 한 점 없이 고요한 나일강을 바라보고 있다. 얼핏 단조로운 풍경의 이 강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로 유명하지만, 표표히 흐르는 강물 속에는 알고 보면 수많은 비밀이 묻혀 있다. 나일(Nile)이란 이름은 '탁하게 흐른다'는 뜻이다. 상류에서 많은 침전물을 날라온 강물이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에 이르러 혼탁해져 생긴 이름이다. 나일강은 범람하며 주변을 옥토로 만들었고, 문명을 탄생시켰다.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 삶을 만든 이집트의 모든 것이 나일강인 셈이다. 이집트를 제대로 보기 위해, 아스완에서 룩소르까지 나일강을 따라 운항하는 4박5일 크루즈를 체험하기로 했다.

태양이 작열하는 정오, 딜럭스 크루즈 오베로이 필라이(Oberoi Pilae)가 우아한 몸짓으로 강물을 가르며 아스완에 도착했다. 출발과 동시에 점심 뷔페가 이어졌다. 식사가 끝나고 일행은 이집트식 돛단배 펠루카로 갈아탄 후 인근의 섬에 가서 식물원을 구경하며 애프터눈 티를 즐겼다. 영국 문화의 영향인지, 식물과 차라는 나무랄 데 없이 클래식한 조합이 이곳에서도 인기였다. 배로 돌아온 우리를 맞은 건 칵테일 리셉션과 알라카르테 메뉴 중 메인 요리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디너였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씨푸드 요리를 선택했는데 치즈 튀김과 수프, 빵이 식전 메뉴로 어우러져 식탁이 제법 풍성해졌다. 저녁 식사를 즐기는 동안 공연이 이어졌다. 전통 음악 연주와 벨리 댄스처럼 아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들이었다. 배가 유유히 제국의 마지막 수도를 떠도는 동안, 우린 나일강 위에서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다.

한 낮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선외 활동

다음날 아침, 선실 커튼 사이로 보석처럼 스며드는 햇빛에 나도 모르게 눈을 떴다. 다국적 음식들로 구성된 조식 뷔페를 마치고 범람과 홍수를 막기 위해 건설된 아스완 하이댐과 올드댐, 미완공의 오벨리스트와 필라이 신전을 방문했다. '필라이' 크루즈가 나일 강과 이집트 남쪽에 있는 고대 이집트 사원 유적 지구에 위치한 섬 필라이에서 왔음을 알 수 있었던 짧은 여정이었다. 배는 다시 우리를 싣고 콤 옴보(Kom Ombo)를 향해 달렸다. 런치 뷔페를 마치고 커피와 디저트로 입가심을 할 즈음, 발음부터가 원시적인 '콤 옴보'에 도착했다. 룩소르를 지나 아스완 북쪽으로 48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콤 옴보 사원은 기원전 332년에서 395년 사이에 세워진 신전이다. 흔적을 더듬기에도 먼 그레코 로만기에 세워졌으며, 사원에는 제18왕조의 건축물도 일부 남아 있다. 신전 투어를 마치고 다시 배에 올랐다. 에드푸(Edfu)로 뱃머리를 향할 차례였다. 나일강 크루즈는 가격 면에서 보면 이집트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여행이다. 내부에는 레스토랑과 바, 수영장과 스파, 서재 등 다양한 선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덕분에 한낮의 더위를 피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크루즈 여행에 참가하면 오전에는 주로 신전 등 유적지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잠을 자거나 갑판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바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오후가 되자 어김 없이 애프터눈 티가 제공되었고, 저녁에는 특식 개념의 이집트 뷔페 디너가 선보였다. 흥겨움을 더한 건 우리네 전통의상 체험과 비슷한 갈라비야(Galabiya) 코스튬 파티였다. 나일강 크루즈의 백미는 한낮의 더위와 밤의 흥겨움이 지난 뒤의 고요함과 적막함이다. 5성급 호텔의 객실 침대에 누워, 혹은 발코니에 서서 찰랑거리는 강물 소리를 들으며 강물의 도도한 흐름을 느끼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경험이다. 또 다시 선상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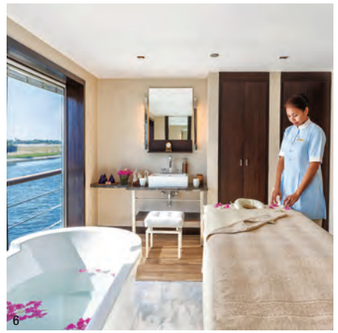
THE OBEROI NILE CRUISE
Sahl Hasheeh, Red Sea
Tel: + 20 65 3461 040
www.oberoihotels.com



우아한 드레스코드의 디너와 크루즈 스파

새벽잠을 깨운 건 강둑에서 들려오는 맑은 새소리였다. 피리소리인가 하다가 노래의 주인공이 새라는 걸 알고, 어쩌면 사이렌이 이집트에서 새로 환생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다.

조식을 마치고 예정된 에드푸 호루스 신전으로 향했다. 기원전 237년에서 57년 사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 세워진 성전은 오늘따라 유난히 푸른 하늘 속에서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점심 식사와 매일 진행되는 크루즈의 의식 '애프터눈티'를 즐기는 동안 배는 조금씩 몸을 움직여 고대도시 에스나(Essna)를 거쳐 이집트의 '역사 수도' 룩소르를 향해 나아갔다. 해질 무렵에는 모두 갑판에 올라 나일강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했다. 삼 일째 '블랙 앤 화이트 드레스 디너'는 아주 특별한 드레스 코드와 함께 진행되었다. 미리 준비해간 미니 블랙드레스를 입고 음식과 음악, 춤을 즐겼다. 아직 보지 못한 룩소르가 까만 어둠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다. 시간을 거스른 듯한 선실 밖의 풍경 때문이었다. 조식을 마치고 기대에 부풀어 귀중한 인류 유적지들이 모여 있는 웨스트 뱅크로 향했다. 이집트 다큐멘터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명소이기도 했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수천 년 전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런치 뷔페를 마치고 미리 예약해둔 스파 룸으로 내려갔다. 크루즈에 스파라니, 처음 경험해 보는 호사였다. 영혼까지 스며들 것 같은 부겐빌레아 향 속에서, 내가 체험한 건 신비와 몽롱을 오가는 '아라비아 판타지'였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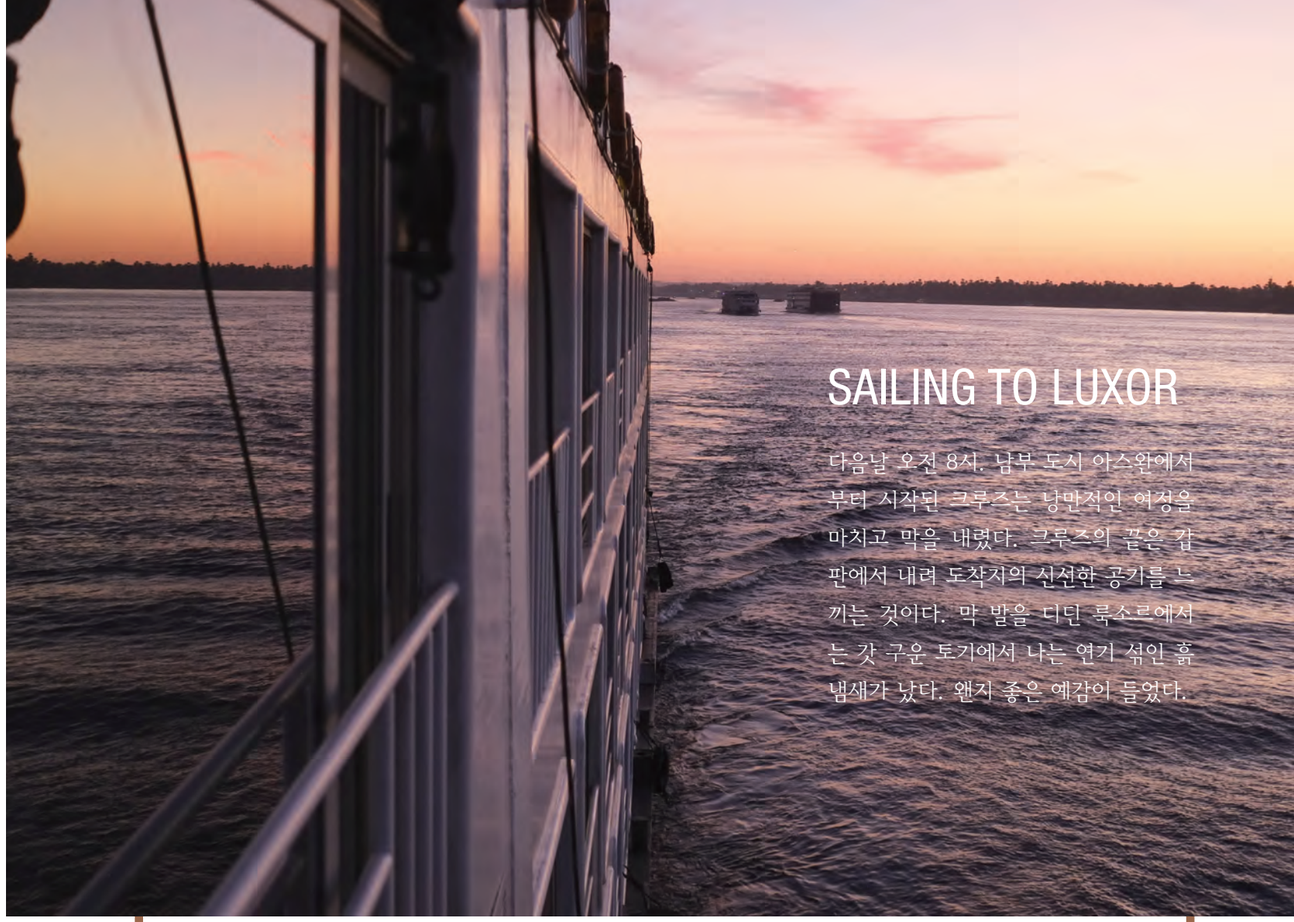
7

5

5.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쿠지

6.
나일강이 보이는
스파 룸

7.
이집션뷰티의 상징,
부겐빌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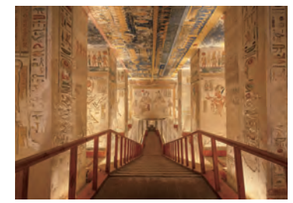
SAILING TO LUXOR

다음날 오전 8시, 남부 도시 아스완에서부터 시작된 크루즈는 낭만적인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크루즈의 끝은 갑판에서 내려 도착지의 신선한 공기를 느끼는 것이다. 막 발을 디딘 룩소르에서는 갓 구운 토기에서 나는 연기 섞인 흙냄새가 났다. 왠지 좋은 예감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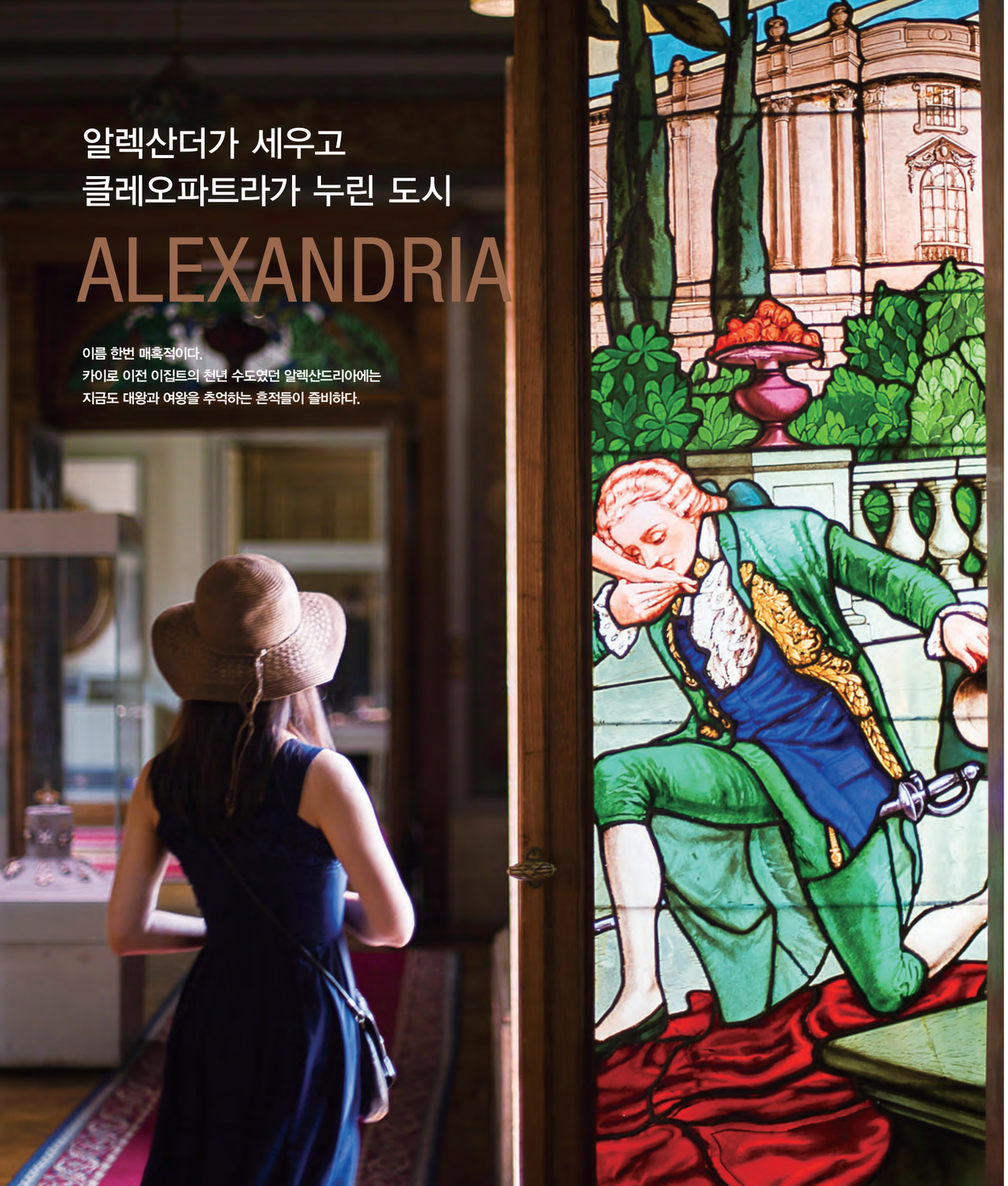
나일강크루즈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명소 3

에드푸 신전 매의 형상을 하고 있는 호루스 신에게 봉헌된 신전으로 이집트의 신전 중 가장 완벽한 보존 상태를 자랑한다. 죽기 전 꼭 봐야할 세계 역사 유적 1001선 중 하나로도 올라 있다

멤논 거상 아멘호텝 3세가 테베에 건축한 장제전의 정문을 지키던 두 개의 석상. 높이가 무려 17.9미터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다. 장제전 대신 지금은 거상만이 남아 신전을 지키고 있다.



왕들의 계곡 룩소르 서쪽 교외에 있는 이집트 신왕국시대의 왕릉이 집중된 좁고 긴 골짜기. 투트모세 1세부터 람세스 11세에 이르는 제18, 19, 20왕조의 거의 모든 왕들이 묻혀 있는 '왕릉 골짜기'다.



알렉산더가 세우고 클레오파트라가 누린 도시

ALEXANDRIA

이름 한번 매혹적이다.
카이로 이전 이집트의 천년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는
지금도 대왕과 여왕을 추억하는 흔적들이 즐비하다.

1

2

3

1.
알렉산드리아의 관문,
카이트베이 요새

2.
세계적 레스토랑으로 꼽히는
'Byblos'

3.
요새에서 바라본
알렉산드리아

FOUR SEASONS HOTEL ALEXANDRIA
El-Gaish Rd, San Stifano, First Al Raml, Alexandria Governorate
Tel: +20 3 5818000
www.fourseasons.com/alexandria

전성기 해상 왕국으로의 시간여행

아스완과 룩소르의 강변에서 이집트식 돛단배인 펠루카가 유적 사이를 오갔다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삶의 어선들이 오바리 광장 앞바다를 부유한다. 알렉산더가 세우고 클레오파트라가 살던 델타 끝자락의 도시는 이렇듯 지중해의 훈풍과 맞닿아 있다.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 무대 역시 알렉산드리아였다. 도심 곳곳에는 그 시절의 영화를 추억하는 유적이 남아 있다. 가장 선명한 자취는 지중해 연안에 들어선 카이트베이 요새다. 성에 가까울 정도로 화려한 외관의 요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팔로스 등대가 서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한때 파트마 알 자흐라 공주가 살았던 궁전에는 이집트의 왕과 왕비들이 애용하던 보석 및 장식품을 모아놓은 로얄 주얼리 박물관이 들어섰다. 어둠이 깔리니 최고급 호텔들이 해변에 늘어선 산스테파노 구역 전체가 거대한 샹들리에처럼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로 꼽히는 포시즌 호텔의 비블로스(Byblos) 레스토랑에 앉아 풍미 가득한 씨푸드 그릴 요리에 이집트산 화이트와인을 만끽했다. 커튼 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도시의 불빛이, 그리고 지중해의 바다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영원히 사는 불사조, 룩소르

THE PALACES, LUXOR

나일강 상류에 자리 잡은 테베(Thebes)는 아몬(Amon)신의 도시였다. 카르나크와 룩소르의 사원과 궁전을 품은 룩소르는 이집트 문명의 전성기를 펼쳐 보이는 매혹적인 세계문화유산 도시다.

1.
명사들의 모임장소였던
빅토리안 라운지

HOTEL SOFITEL WINTER PALACE LUXOR
17 Corniche el Nile street Beside LUXOR Temple
Tel: +20 95 2380422
www.accorhotels.com/fr/hotel-1661-sofitel-winter-palace-luxor

신전부터 오벨리스크까지 지붕 없는 야외 박물관

크루즈에서 내려 숙소인 소피텔 윈터팰리스에 짐을 풀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부터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그의 부인인 카를라 브루니 여사까지 수많은 명사들이 거쳐간 네오클래식 양식의 유서 깊은 랜드마크다. 호텔을 나와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 위치한 카르나크 신전으로 향했다. 오래 전 강력한 왕국이었던 테베에는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카르나크 신전은 규모 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건축물이다. 신전에는 원래 투트모스 1세와 2세의 오벨리스크, 하셉수트의 오벨리스크까지 3개의 오벨리크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두 개의 오벨리스크만이 서 있다. 카르나크를 마주보고 있는 룩소르 신전은 이스트 뱅크에서 꼭 봐야할 또 하나의 유적이다. 룩소르 신전에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세운 24미터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있다. 신전으로 통하는 길은 넥타네보 1세가 건설한 '스핑크스의 길'로 알려져 있다. 복원을 거쳐 남은 유적의 석조가 어찌나 정교하고 섬세한 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데, 룩소르의 유적만큼은 예외다.

룩소르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체험

열기구 탐험 그냥 하늘로 떠오르는 게 아니다. 유적지를 두루 보며 날아다닌다. 흔치 않은 체험인데, 하늘 여행을 마치고 내려오면 수료증까지 준다.

마차 투어 마부가 이끄는 마차에 오르면 18세기 이집트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기온이 선선해지는 밤에 클래식한 마차를 타고 시티투어에 나서 보자.

선라이즈 보트 사막 국가의 일출은 일몰만큼이나 황홀하다. 보트를 타고 한 잔의 티와 함께 스칼렛 레드로 물든 룩소르를 감상해 보자.

열기구 타고 하늘에서 감상한 최고의 파노라마

다음날 새벽, 선라이즈 보트를 타기 위해 호텔 앞 마리나로 갔다. 이스트뱅크에서 웨스트뱅크로 이동하며 일출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따끈한 애플민트 차와 함께 조그마한 케이크 한 조각이 제공되었다. 이스트뱅크가 점점 멀어지면서 어둠이 걷히고 불지옥처럼 강렬한 일출이 나일강을 붉게 물들였다. 열기구를 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모두 손을 잡고 둘러 서서 강강술래 비슷한 춤을 췄다. 고대 이집트에서 '원'은 피라미드 다음으로 완벽하게 여겨지던 형태였다. 대기해 있던 오렌지색 열기구에 탑승하자 열기구가 불을 내뿜더니 사뿐 날아올랐다. 푸른 나일 강과 초록색 전답, 오페라 아이다의 원 무대인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등 노란 유적들이 한 눈에 내려다보였다. 하늘을 유영하며 고대 테베와 네크로폴리스 등 세계문화유산을 접하다니, 꿈만 같았다. 50여분 여의 탐험을 마치고 다시 보트를 타고 이스트뱅크로 건너와 룩소르의 오랜 역사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엘 수크(El Souk) 시장을 찾았다. 광물에서 채취하는 귀한 인디고 블루 천연 염료가 사막에서 본 끝없이 높은 하늘 같았다. 시장의 상인이 민트 잎을 띄워 대접해주는 민트차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룩소르만의 환대였다.

2. 고대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열기구
3. 이집트 상형문자가 새겨진 신전의 돌벽
4. 민트 잎을 띄워 대접하는 전통 티
5.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엘 수크 시장

지명이자 신전의 이름이기도 한 룩소르(Luxor)는 아랍어로 알 우크수르(al'uqṣur), 즉 '궁전들'이라는 뜻이다. 이름부터가 과거 수천년 동안 서구 세계를 주름잡던 세계 최강국의 수도였다는 영광을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다.

이집트 음식 맛의 7할은 양념 맛!

THE EGYPTIAN SPICES

계피부터 머스터드 시드까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이집트의 향신료들.

코리앤더
C O R R I A N D E R

코리앤더 씨앗을 갈아 허브의 씨앗과 견과류, 스파이스를 섞으면 이집트인들이 좋아하는 향신료 '듀카'가 된다. 올리브 오일을 찍은 빵에 듀카를 듬뿍 찍어먹거나 구운 야채나 삶은 달걀 등에 듀카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샐러드가 된다.

계피
C I N A M O N

고대 이집트부터 사용해온 천연 향신료. 천연방부제로 겨울에 고기를 저장하기 위해 방부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다. 실론 계피는 색이 연하고 속이 차있으며 단맛을 가지고 있어 차의 용도로도 많이 사용된다.

월계수잎
B A Y L E A F

월계수잎을 그대로 말린 것으로, 생 잎은 쓴맛이 두드러지지만 건조하면 달콤한 맛이 난다. 오레가노, 타임과 비슷한 향이 나 스튜나 스프, 각종 소스에 첨가하거나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한 마리네이드 재료로 쓴다.

정향
C L O V E

꽃봉오리를 채로 말려 쓰는 유일한 향신료. 톡 쏘는 자극과 동시에 상쾌하면서도 후추 향과 약간의 떫은 맛이 난다. 커리 파우더의 주 재료로, 각종 육류 요리를 비롯해 육수와 소스, 피클과 멀드 와인에 이르기까지 용도가 무궁무진하다.

머스터드 시드
M U S T A R D S E E D

겨자 꽃이 핀 후에 열리는 작은 씨앗. 통으로 쓰거나 가루로 만들어 쓴다. 특유의 알싸하고 매운 향이 쇠고기와 생선, 닭, 오리 등 가금류 요리에 곁들이기에 좋다. 블랙, 브라운, 옅은 노란빛 중 블랙이 가장 매운 맛을 내며 씨앗을 빻으면 매콤함이 더 강해진다.

커민
C U M I N

미나리과 식물인 커민의 길고 가느다란 씨앗으로, 맵고 톡 쏘는 자극적 향과 씁쓸한 맛이 특징이다. 북아프리카의 쿠스쿠스, 중동의 케밥 등에서 나는 향이 바로 커민 향이다. 수프, 육류, 생선 요리의 맛을 돋우기 위해 넣는, 후추 같은 역할을 한다.

팔각
S T A R A N I S E

붉은 갈색의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별 모양의 향신료. 감초와 비슷한 향을 내며 매콤한 단맛을 지니고 있다. 육류, 해산물 요리의 잡내 제거와 요리 풍미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각종 커리의 주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화장술과
메이크업의 원조
이집트

THE EGYPTIAN BEAUTY

이집트는 전세계를 통틀어
메이크업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다.
메이크업이라는 매혹의 치장술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메이크업의 역사는 기원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분이 높고 고귀한 사람들이 연고 타입의 크림이나 화장수를 얼굴이나 몸에 즐겨 바르곤 했다. 영국인 하워드 카터가 발굴한 유명한 투탕카멘왕의 분묘에서 발견된 크림 케이스에는 많은 향료가 들어 있었고 발굴 당시에도 희미한 향기를 내고 있어 놀라움을 더했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화장품의 조제는 성직자나 의사의 몫이었다. 크림의 원료로 애용되던 원료는 참기름이나 아몬드 오일, 비즈 왁스, 타임, 와이르드마죠람, 미르라, 후란킨센스 등이었다. 상류계급의 사람들은 향이 있는 정유를 욕실에 놓아두고 사용했는데, 천연 탄산 성분이 있는 나일강의 흙을 몸을 비비고 난 후 향유로 전신을 마사지했다. 마사지가 끝나면 몸에 황토색의 파운데이션을 발랐다. 안티몬 성분의 '콜먹'이라 불리는 먹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을 검게 그려 오늘날의 아이라인도 하고 있었다. 분말 형태로 부순 공작석은 그린 컬러의 아이새도로 사용했다. 매니큐어나 머리카락은 헤나에서 추출한 오렌지색으로 염색했다. 그 후, 기원 전 50년경 클레오파트라의 시대가 되면서 코스메틱은 한층 더 현대의 것과 비슷해졌다. 특히 눈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유행했는데, 의학적 효용을 지닌 코스메틱의 사용을 중시한 이집트인의 미용관은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고대 이집트 시대의 유물과 유적지의 벽화, 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파라오 시대에는 왕족과 귀족 뿐 아니라 일반 평민도 화장품과 향수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성분 중에는 오늘날에도 화장품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방산, 글리세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메이크업 제품 외에도 주름 예방 크림, 튼살 방지 크림, 헤어 케어 크림, 염색약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존재했다니 이집트 제국을 건설하면서 '미의 제국'도 함께 완성했던 셈이다.

이집트 코튼을
세계 최고로 꼽는 이유

THE EGYPTIAN COTTON

코튼 앞에 '이집트' 혹은 '이집션'이 붙으면
그 면은 최고의 면으로 등극한다.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기로 유명한
이집트 코튼은 이제 럭셔리 소재의 대명사로 불린다.

특급 호텔이나 리조트에 어김 없이 등장하는 홍보 문구 중 하나는 '100% 이집트 코튼으로 제작한 침구와 타월'이다. 이집트 코튼은 어째서 특별할까?
이집트에서 최고급 면화 종자가 심어진 건 1821년. 이집트의 독특한 기후와 나일강의 비옥한 토양은 최고급 면화 재배에 이상적이었다. 이집트 코튼이 다른 원산지의 그것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최초의 이집트 코튼은 프랑스인인 무슈 주멜(Jumel)에 의해 재배되었다. 자신의 아름다운 카이로의 정원에 피어난 목화 꽃을 발견한 그는 몇번의 실험과 실패를 거쳐 고급스러운 텍스처의 스테이플 면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미국 남북 전쟁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유럽인들은 이집트산 코튼으로 침실과 욕실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이집션 코튼'이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서 수요는 더욱 급증했다. 1861년 면화 59만6천 칸타르를 수출한 이집트는 2년 후인 1863년에는 생산량을 130만 칸타르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효과는 가히 혁명적이었다.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이집트 코튼은 빠르게 퍼져 나가 전세계에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지금은 주요 관광지가 된 아스완 하이댐이 건설되면서 나일강의 홍수가 통제되자 북부에 국한되었던 이집트 면화 재배 지역은 남부로 확산되었다. 이집트 코튼은 세계 각지에서 제조된 다른 어떤 면보다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나다. 비옥한 토양과 재배 환경을 만든, 나일강이라는 축복 덕분이다. 순백의 흰색이든 스펙트럼이 강렬한 색조든 이집트 면은 더 깊고 밝으면서 생생한 컬러를 유지한다. 비옥한 나일 델타 지역에서 재배된 고품질 면화에서 한 땀 한 땀 뽑은 면은 몇 번을 세탁해도 처음의 퀄리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호화로운 안락함을 제공하는 이집트 코튼은 오늘도 길고 고귀한 유산을 바탕으로 탄생한다.

남자 무용수가
치마를 입고 추는
전통 '수피' 공연

밤의 여왕을 위해 빛나는 도시

CAIRO, THE QUEEN OF NIGHT

**카이로의 밤은 뭉클한 만큼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카이로타워에 올라 주홍과 보라, 선홍빛으로 물든 밤의 도시를 보면
여행의 순간이 조금은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

1.
빛으로 물든
나일강을 보며 즐기는
디너 크루즈

색채와 빛이 펼치는 어둠 속 향연

보석 같은 색채의 램프가 장식된 다리를 건너자 저녁 식사가 예약된 강변의 배 위에서 화려한 불빛이 무지개처럼 펼쳐진다. 운 좋게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오색찬란 빛나는 나일강 파노라마를 감상하며 후식까지 완벽한 코스 요리를 즐겼다. 중앙의 무대에 오른 남자 무용수가 치마를 입고 이슬람 종교 의식 춤인 수피를 추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기 위해 기립했다. 다양한 색상이 하나의 색상으로 변하는 회전무 속에서 비로소 다양한 카이로의 퍼즐 조각도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카이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도시 가운데 하나다. 현대화된 도시 한복판에 모스크와 마드라사 등 역사적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크루즈 후 발길을 향한 올드 카이로는 교회와 카페테리아, 구식 상점들이 아무렇게나 어우러진 비밀의 미로 같은 곳이었다. 스핑크스 앞에 선 여행자처럼 수수께끼를 풀 듯 좁은 미로에서 벗어나 이집트의 마지막 왕궁 셰프였던 아부 엘 시드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 아부 엘 시드(Abou El Seid)에 들렀다. 1940년대 이집트의 파티장을 연상시키는 레스토랑에서 시그니처 요리를 즐긴 후, 카이로의 밤하늘을 만끽하기 위해 게지라섬 남쪽에 위치한 카이로타워로 향했다. 187미터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니 나일강을 감싸 안은 카이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 〈미술피리〉에 등장하는 밤의 여왕조차 반할 만큼 아름다운 어둠과 불빛의 향연이었다.

NILE MAXIM
15 May Bridge, Omar Al Khayam,
Zamalek, Cairo
Tel: +20 2 27388888
http://www.maximrestaurants.com

1

카이로의
장식품 & 앤티크 딜러

Aref Daoudi

아레프 다우디는 시리아 출신이다.
일찍이 공예품과 예술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 매혹적인 도시로 와서
이슬람권 곳곳에서 공수한 앤티크를 전시, 판매하는 앤티크 갤러리를 열었다.

MINI INTERVIEW

카이로에 정착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카이로는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외피를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문화가 만나 다채로운 시너지를 빚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이집트를 등에 업은 카이로는 단언컨대 최고의 도시입니다.

**카이로가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군요.
자개 장식의 가구와 장식품, 보석,
화려한 실버웨어까지,
앤티크를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크게는 형태, 디자인, 소재의 내구성부터 작게는 장식의 마감, 제작 배경 등 디테일까지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특히 차별화된 배경과 스토리, 비법을 간직한 아이템에 끌리는 편입니다.

**다양한 패턴과 색상의
카페트들도 눈에 띄는데
이집트 카페트만의 매력을 꼽는다면?**

영화 〈클레오파트라〉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분한 클레오파트라가 삼엄한 궁전 경비를 뚫고 줄리어스 시저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집트의 여왕은 몸을 카페트로 둘둘 말아 숨기는데, 삼엄한 경비를 뚫고 로마 황제의 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집트 카페트가 무척이나 값어치 있는 고투자가치품목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집트 카페트는 최고의 장식품이자 예술품입니다.

**이집트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정의한다면?**

이집트 전시나 박물관을 보면 알 수 있듯, 이집트의 상류층은 오랫동안 그들만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와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호사를 누리는 데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실용성 못지않게 예술성이나 가치를 중시 여기는 선택을 하고요.

1.
왕의 마지막 셰프,
아부 엘시드 레스토랑

2.
두꺼운
장정으로 부활한
파라오

3.
독수리가 인상적인
카이로 타워

4.
성문을 연상케 하는
쇼핑 아케이드

5.
램프로 불을 밝힌
맥심 크루즈

6.
코일을 이용해
상감을 완성하는 장인

7.
신비로운
아랍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

1

2

3

4

5

6

7

NIGHT LIGHTS

‘빛과 색채’의 화가
테레사 칼라트의 스톡홀름 야간 투어에
The new A-Class가 동행했다.

글 헨드리크라케베르크(HENDRIK LAKEBERG)
사진 디르크브루니키(DIRK BRUNIECKI)

스톡홀름 도심 속 적막의 일부가 된 The new A-Class

테레사칼라트(Theresa Kallrath)는 자신의 그림에서 빛이 나길 원하는 아티스트다.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이전에는 한 번도 느낀 적 없는 감정을 경험하도록 말이다.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어요.” 그뢰나룬드 공원에 푸른 땅거미가 지자 대관람차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진다. 테레사는 지금 스톡홀름 시내와 하늘에서 극적으로 펼쳐지는 빛의 예술을 감상하는 중이다. 다음날 아침, 테레사가 작업중인 커다란 캔버스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생기로 넘쳐 났다. 바사파르켄 공원 인근에 자리한 스벤하리 미술관(Sven-Harry’s art museum)에 잠깐 들른 뒤 테레사는 The new A-Class를 몰고 스톡홀름 구시가인 감라스탄으로 향했다.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와 골목이 무척 많은 감라스탄은 중세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거주지인 뒤셀도르프에서 테레사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카투고(car2go)를 주로 이용했지만 지금은 한적한 스톡홀름 거리에서 The new A-Class를 몰고 있다. 여름 휴가를 즐기려고 떠난 사람들 덕분에 도시 전체에 숨을 참는 듯 묘한 적막이 감돈다.

음성지원 기능으로 찾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색

다음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테레사는 MBUX의 새로운 음성 지원 기능을 사용해 보기로 했다. 그녀가 “메르세데스, ‘탁레스토랑앤바’까지 길 안내를 부탁해”라고 말하자 스톡홀름의 전망 좋은 루프톱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이 스크린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루프트톱 바에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다. “빛이 없다면 어떤 색도 볼 수 없어요. 색은 우리를 매혹하죠.” 잠시 비가 내리고 구름이 걷히자 테레사는 쇠데르말름의 가장 핫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갖가지 색깔을 발하는 오래된 건물들이 인근의 갤러리와 바, 부티크 상점들과 그림처럼 잘 어우러진다. “그림을 그릴 때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야 해요. 규범에 너무 얽매여선 안돼요. 무한한 상상력을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테레사는 자신의 철학을 강조하듯 페달에 힘을 주었다. 속도를 내자 도시의 풍경은 더 빨리 우리 곁을 지나갔다. 눈을 반쯤 감으니 불빛이 흐려지면서 석양의 노을과 다양한 색깔이 한데 섞여 눈 앞에 일렁였다.

자능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혁신적인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터치스크린 또는 음성명령으로 작동된다. The new A-Class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에 성공했다.
mbmag.me/MBUX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사양과 이미지는 국내 출시 모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BEST WINTER GETAWAYS

겨울이라고 해서 온 세상이 얼고
여행자의 발목마저 꽁꽁 묶이는 것은 아니다.
겨울이라서 도리어 찬란히 피어나고 빛나는 여행지도 있다.
겨울에 만끽할 수 있는,
'겨울 나그네'들을 유혹하는 매력 만점의 여행지들.

에디터 한유리

ICELANDIC GLACIERS

아이슬란드 빙하 투어

물, 빙하, 이끼로 가득한 자연을 아끼고 포용할 줄 아는 아이슬란더의 나라, 아이슬란드. 겨울 아이슬란드를 꼭 봐야 하는 이유는 오로라와 빙하 동굴 때문! 겨울은 얼음 왕국의 풍광이 절정을 이루는 계절이다. 제설 작업이 빠른 링 로드 1번 도로를 따라 여행하다 보면 싱벨리어 국립공원, 굴 폭포, 게이시르 지열 지대 3곳을 묶은 '골든 서클' 등 알짜배기 관광지들을 두루 만날 수 있다. 셀랴란드스 폭포와 스포가 폭포 등 인근의 수려한 폭포들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그 옆으로는 바트나이와쿠틀이라는 거대한 빙하가 기다리고 있다. 빙하 안쪽에 자리한 스카프타펠 공원에서는 아이슬란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빙하 바이킹을 즐길 수 있다. 특급 팁을 하나 더 주자면, 영화 〈인터스텔라〉 촬영지로 인기를 얻은 스비나펠스이외쿠틀 빙하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

캐나다 오로라 투어

겨울 하면 뭐니뭐니 해도 오로라 투어를 빼놓을 수 없다. 캐나다의 많은 지역에서 오로라 관측이 가능하지만 이왕 가는 것 오로라가 잘 보이는 곳이면 금상첨화일 터. 노스웨스트 준주 옐로나이프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오로라 관측지다. 옐로나이프는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근거로 할 때 3일 연속 오로라를 관측할 경우 95퍼센트의 성공률을 보이는 최고의 관측 지역이다. 극한 기온에 대한 대비는 필수!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도 잊지 말자. 유콘 준주의 화이트호스도 오로라 관측지로 유명하다. 화이트호스는 오로라 관측 외에 개썰매 체험이나 다운타운 투어 등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경유지인 휘슬러나 캐나다 로키에서의 스키 여행, 겨울이면 환상적인 설국열차로 변하는 비아레일 체험도 오로라의 매혹을 더해준다.

THE CANADIAN AURORA

스코틀랜드 위스키 투어

위스키 마니아라면 이번 겨울 스코틀랜드로 떠날 것. 가슴을 타고 뜨겁게 흐르는 위스키가 추위를 녹여줄 테니까. 스페이사이드나 아일레이처럼 증류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떠날 것을 권한다. 스페이사이드의 중심지인 더프타운 근처의 증류소 중에서도 조니워커의 브랜드 홈인 카듀 증류소, 싱글몰트의 효시인 글렌피딕 증류소, 스코틀랜드에 들어선 최초의 합법적 증류소인 더 글렌리벳 증류소 등은 스코틀랜드에 온 이상 꼭 한 번 들러볼 만한 곳이다. 아일레이 섬의 경우 특이한 환경과 제조 방식의 영향으로 마니아층의 선호도가 높다. 반면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위스키는 부드러우면서 약간의 단맛과 플로럴향을 갖고 있어 위스키 초보자들도 즐길 수 있다. 지역별 위스키의 성격을 이해한 뒤 투어 지역이나 증류소를 선택한다면 만족도는 더욱 높아진다.

THE SCOTTISH WHISKY TRAIL

스위스 치즈 트레인

열차를 타고 설원에 핀 눈꽃을 따라 가면 고소한 치즈 향이 가득한 마을이 나온다. 동화 속 이야기 같지 않은가? 12월에서 4월까지만 운행하는 스위스의 치즈 트레인은 어른들만의 동화를 완성해주는 낭만적인 열차다.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 "트레인 뒤 포마쥬(Train du Fromage)", 혹은 '치즈 트레인'으로 불리는 열차가 제네바 지역의 몽트뢰와 샤또 데(Château d'Oex) 사이를 운행한다. 샤또 데에서 승객들은 난생 처음 200리터의 우유가 르 샬레 비오 치즈로 변하는 마법을 지켜보게 된다. 추위를 잊게 할 만큼 근사한 르 샬레(Le Chalet) 레스토랑에서 맛보는 맛있는 비오 퐁뒤는 열차 여행의 하이라이트다. 마지막 방문지인 빼이-덩오 박물관은 복잡한 도안으로 구성된 독특한 전통 종이 공예 컬렉션으로 관람객의 눈과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는다.

THE CHEESE TRAIN IN SWITZERLAND

잉카 트레일

사계절 좋은 잉카 트레일이지만, 낮 기온이 선선해지는 겨울은 잉카 트레킹에 최적인 계절이다. 약 45킬로미터 코스의 '클래식 잉카 트레일'에 도전해 보자. 산티아고 순례길 보다 짧지만 매년 전 세계 약 2만5천명의 여행자들이 참여하는 인기 코스다. 잉카인이 건설한 돌길을 따라 쿠스코의 구름 속 깊은 산중에 있는 난공불락 유적지 마추픽추에 도달하는 것으로, 82킬로미터 지점에서 코스가 시작된다. 도착 후 여권 심사대를 거치면 바로 마추픽추 국립공원으로 접어든다. 우루밤바 강 서쪽 강변을 따라 바에 사그라도로 곧장 흘러 들어간다. 트레킹 구간에서 제일 높은 지점인 해발 4200미터 높이의 와르미와뉴스카는 '죽은 여인의 통로'라는 별칭을 지닌 고갯길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주변 산지의 경이로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잉카 터널을 지나면 '구름 위의 시'로 알려진 푸유파타마르카 유적지에 닿는데 트레일 전체 구간에서 가장 완벽한 보존 상태를 자랑한다. 높은 곳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교하게 설계된 유적지 전체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THE INCA TRAIL

새로운 한 해의
풍요를 바라며 즐기는 음식

LUCKY FOODS ON NEW YEAR'S DAY

**새해가 되면 각 나라마다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며 먹는 음식이 있다.
장수, 성실, 지혜, 풍작, 풍요 등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음식들이 대부분이다.
세계 곳곳, 각 문화권마다 다양한 풍습으로 내려오는
새해 음식에 대해 알아보자.**

에디터 김홍주

UNITED STATES

가벼운 핑거푸드와 함께 여는 축연

미국의 신년은 우리 나라의 그것과 매우 달라 단지 설날 그믐날(New Year's eve)의 연장이다. 12월 31일 밤에는 가정에서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성대한 파티를 연다. 이때 주로 나오는 음식은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가벼운 핑거푸드다. 밤 12시가 되면 종을 울리거나 나팔을 불거나 샴페인을 터뜨리며 건배를 한다. "Happy New Year!"를 외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를 하는 모습은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새해 첫날 '호핑 존(Hopping John)'이라는 음식을 먹는다. 콩과 쌀, 고기, 베이컨을 넣어 끓인 이 음식은 본래 흑인 노예들이 먹던 것이었는데 인기를 끌면서 미국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새해 음식으로 자리잡았다.

VIETNAM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만드는 바인쯩

사계절 내내 더운 베트남에서 새해에 즐겨 먹는 음식은 '바인쯩'이라 불리는 찹쌀밥이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녹두와 돼지고기, 찹쌀을 넣고 6시간 동안 쪄서 네모나게 만든 '바인쯩'을 바나나 잎에 싸 두었다가 먹는다. 바인쯩은 약한 불에 쪄내야 하는 슬로푸드로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바람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든다. 베트남에서는 설날에 수박을 준비해놓고 한 가운데를 갈라 빨갛게 익은 정도를 놓고 신년 운세를 점치는 풍습이 있다. 고른 수박의 속이 붉을수록 새해 운이 좋다고 믿는다.

JAPAN

산 위에 떠오르는 신년 해를 닮은 오조니

일본의 신년은 첫 참배라는 의미인 하츠모데로 시작한다. 일본에서는 1월 1일 새해 첫 날 새로 뜨는 해를 보면 한 해의 재수가 좋다고 믿는다. 높은 산에 올라가 떠오르는 신년 해를 바라보며 한 해의 소원을 비는 것이 오랜 관습인데 이 의식을 닮은 음식이 바로 '오조니'다. 오조니는 여러 가지 야채와 생선을 국물에 넣고 끓이는데, 지방마다 넣는 재료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국물에 모두 된장을 넣고, 그 속에 반드시 둥글게 생긴 가가미 모찌가 들어간다. 조니를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며 설날 기분을 낸다.

NETHERLANDS

평안과 행운을 기원하는 올리 볼렌

1년 중 단 하루만 폭죽 놀이를 허용하는 네덜란드에서는 31일부터 일찌감치 폭죽 놀이가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특히 신년 전날 밤에는 한해 동안 몰려올 집안의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화약을 넣은 통을 터뜨린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새해 음식은 말린 과일을 넣은 '올리 볼렌(Oliebollen)'이란 작고 동그란 도넛이다. 온 가족이 갓 튀긴 뜨거운 올리 볼렌을 나눠 먹으며 한 해의 평안과 행운을 기원한다.

HANGOVER RECIPE

술이 빠질 수 없는 파티. 나라별 기상천외 숙취해소법.

블러디메리

이열치열! 영국에서는 해장을 위해 해장술을 마신다. 보드카에 토마토, 토마토주스를 넣은 '블러디 메리'를 마시며 해장을 한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풍부한 수분과 구연산이 술 깨는데 도움을 준다.

청어절임

독일에서는 숙취해소를 위해 절인 청어 절임을 먹는다. 청어에 들어있는 메티오닌, 아스파라긴산과 같이 풍부한 영양소가 간세포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날계란

계란은 숙취 해소뿐 아니라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중국에서는 술 깨는 방법으로 날계란을 애용한다.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레시틴이 위를 보호해주고 간의 회복력을 높여준다.

양파수프

프랑스에서는 따끈하게 끓인 양파 수프를 숙취 해소제로 이용한다. 양파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숙취해소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쓰린 위를 든든하게 채워준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패션으로 표현하는 당신만의 아이덴티티.
오늘밤 당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패션 아이템을 소개한다.

에디터 김홍주
자료협조 겐조, 구찌, 기라로쉬, 마놀로 블라닉, 막스마라, 발렌티노, 베르사체, 벨루티, 부쉐론 불가리, 시원아이웨어, 에르메네질도 제나, 위블로, 피아제, 휴고 보스 코리아, IWC

YOU LOOK WONDERFUL TONIGHT

❶ 매혹적인 붉은 빛깔의 카닐리언과 옐로 골드 비즈가 어우러진 쎄뻥 보헴링과 다이아몬드 팬던트가 더해진 드롭형 이어링, **부쉐론** ❷ 은은하게 빛나는 새틴 소재에 크리스털 리본 장식으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V-보우 펌프스 힐, **베르사체** ❸ 화려하고 컬러풀한 패턴, 베르사체를 상징하는 큼지막한 V 장식이 시선을 끄는 버투스 숄더 백, **베르사체** ❹ 블랙 마블 대리석에서 영감을 얻어 블랙과 화이트로 시크하고 도도한 룩을 완성하는 컬렉션, **기라로쉬** ❺ 3.5cm 너비, 반짝이는 크리스털 장식 버클로 화려함을 더한 가죽 소재 벨트, **베르사체** ❻ 골드 컬러의 메탈릭 카프 레더 소재에 뱀 모티브의 체인이 부착된 세르펜티 포에버 홀리데이 시즌 캡슐 컬렉션, **불가리** ❼ 34mm 사이즈, 다이얼에는 12개의 다이아몬드, 케이스에는 92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었고, 35100 칼리버가 동력을 제공하며 42시간 파워리저브를 갖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34, **IWC**

❽ 베르사체의 상징인 메두사와 알록달록 컬러풀한 보석이 세팅되어 심플한 의상도 화려하게 변신시키는 브로치, **베르사체** ❾ 자스민 버드 추출물, 튜베로즈, 랑군 크리퍼, 다마스크 로즈, 그리고 벨베티 오리스로 이루어진 우아하고 깊은 플로럴 향의 구찌 블룸 암브로시아 디 피오리, **구찌** ❿ 화려한 푸시아 핑크 컬러, 크리스털 주얼 장식과 블랙 레이스의 조합이 돋보이는 제론티우스하이 이브닝 슈즈, **마놀로 블라닉** ⓫ 최고급 캐시미어와 울 소재의 코트와 편안하고 우아한 와이드 팬츠 등으로 기품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2020 리조트 컬렉션, **막스마라** ⓬ 화려하고 도전적인 컬러, 보온 효과가 뛰어나고 터치감이 우수한 모드아크릴 소재의 페이크 퍼 코트, **겐조** ⓭ 1970년대의 우아함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아이코닉한 V 로고와 톤온톤의 나파레더로 심플한 라인을 강조한 가라바니 브이슬링 백, **발렌티노** ⓮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2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익스트림리 레이디 워치, **피아제**

⓯

⓰

⓱

⓲

⓳

⓯ 39mm 사이즈에 케이스와 베젤, 다이얼 등을 48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 자수정, 토파즈 등 425개의 멀티 컬러 젬스톤으로 세팅해 극강의 화려함을 강조하는 빅뱅 원 클릭 레인보우, **위블로** ⓰ 제냐만의 독특한 가죽 직조 기법으로 완성한 세련된 스타일의 펠레테스타™ 브레이슬릿, **에르메네질도 제냐** ⓱ 은은한 브라운 컬러가 고급스러운 멋을 더한 베네치아 카프 스킨 소재의 듀얼 스크리토 레더 벨트, **벨루티** ⓲ 신비로운 블루와 깔끔한 실버의 조합으로 셔츠의 디테일을 살리는 카본 파이버 플랫폼 커프링스, **에르메네질도 제냐** ⓳ 미니멀하고 심플한 라인으로 어느 룩에도 매치하기 좋은 쏘스텔레어오원 아이웨어, **디올** ⓴ 세계적인 도자기 브랜드 마이센의 빅 파이브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아프리카 감성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클러치 백, **휴고 보스** ㉑ 다크 바이올렛 컬러의 엘리게이터 레더 소재에 블랙 라이닝 & 아웃솔로 마무리 된 버클 스트랩 장식의 스카 디메져 엘리게이터 레더 버클 슈즈, **벨루티** ㉒ 100% 재활용 캐시미어 소재, 매크로 체크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초콜릿 플럼 컬러의 쿠튀르 패션쇼 캐시미어 코트, **에르메네질도 제냐**

⓴

㉑

㉒

SHINSEGAE
DUTY FREE

누 구 나 결 국 새 로 운 것 에 끌 린 다
NEWTOPIA
인천공항 제1터미널 / 탑승동 / 제2터미널점 | 명동점 | 강남점 | 부산점 | 인터넷면세점

루아르 고성으로 떠나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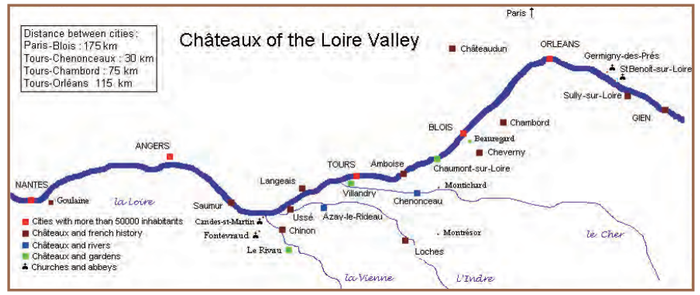
A Pilgrimage to Loire Valley's Chateau

파리 여행이 프랑스 여행으로 통하던 때는 끝났다.
지금껏 만나지 않은 중세 프랑스 귀족사회의 파노라마를 경험하고 싶다면 루아르로 떠나자.
파리에서는 느낄 수 없던 고즈넉 하면서도 사치스러운 프랑스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될 테니까.

에디터 임지영 / **자료협조** 프랑스관광청 (https://kr.france.fr)

잔다르크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 거쳐간 성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이 흐르는 곳, 루아르(Loire).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은 대자연과 고성들이 어우러진 덕분에 '프랑스의 정원'으로 불린다. 프랑스에서 가장 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유명 와인 산지이지만, 유서 깊은 루아르 강을 따라 늘어선 크고 작은 옛 성들로도 유명하다. 14개의 정원으로 유명한 리보 성(Château du Rivau)은 중세 시대의 성으로 백 년 전쟁의 영웅 잔 다르크를 비롯해 수많은 인물들이 거쳐간 곳이다. 500여 종이 넘는 장미가 심어져 있는 장미 정원은 최고의 포토 스폿으로 고성 내 숙박도 가능하다. 셰르 강 위에 서 있는 쉬농소 성(Château du Chenonceau)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리 모양으로 지어진 성이다. '여인들의 성'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프랑스의 권력을 쥐락펴락 했던 여성들의 흔적이 정원 스타일부터 가구 배치까지 뚜렷하게 드러난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프랑스 왕들의 거주지였던 앙부아즈 성(Château Royal d'Amboise)은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의 보물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테라스와 정원을 갖고 있다. 앙부아즈 성에서 지하 회랑으로도 이어진 클로 뤼세 성(Château de Clos-Lucé)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애 마지막 3년을 보낸 성이다. 성 곳곳에서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다빈치가 설계한 발명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루아르 강이 내다보이는 쇼몽 성(Domaine de Chaumont-sur-Loire)은 고풍스러운 성과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블루아 성(Château royal de Blois)은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무려 7명의 왕과 10명의 왕비가 거주한 왕궁이다. 여러 왕들을 거쳐가면서 증축된 까닭에 고딕, 르네상스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어우러져 있다. 왕에게 헌정되었던 와이너리에서의 와인 시음으로 여행에 방점을 찍어보자. 어째서 루아르가 수백 년 역사의 굴곡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루아르 고성, 300배 즐기기!

DAVINCI CODE

수백 년을 앞서간 거장의 화실, 궁금하지 않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애 마지막 3년을 보낸 클로 뤼세 성(Château de Clos-Lucé)에서 크로키, 발명품을 망라하는 다빈치의 수수께끼를 풀어보자.

SOUND & LIGHT

다양한 건축양식이 어우러진 블루아 성은 사파이어 밤하늘을 수놓는 '소리와 빛 축제'로 유명하다. 소리와 빛으로 전하는 프랑스 왕실의 천년 역사가 한 폭의 살아있는 명화를 감상하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해준다.

QUEEN STAY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주목할 만한 정원(Jardin remarquable)'이란 칭호를 부여받은 리보 성에서는 진짜 왕 또는 여왕 체험을 할 수 있다. 웅장한 성에서의 숙박은 물론, 아름다운 정원을 프렌치 쿠진과 함께 즐길 수 있다.

크리스마스의 도시, 런던

ALL YOU NEED IS LONDON

거리가 흰 눈과 캐롤 송으로 물들 때면 생각나는 영화 〈러브 액추얼리〉. '필요한 건 사랑 뿐'이라고 호소하는 영화 〈러브 액추얼리〉 속 크리스마스의 런던을 따라 여행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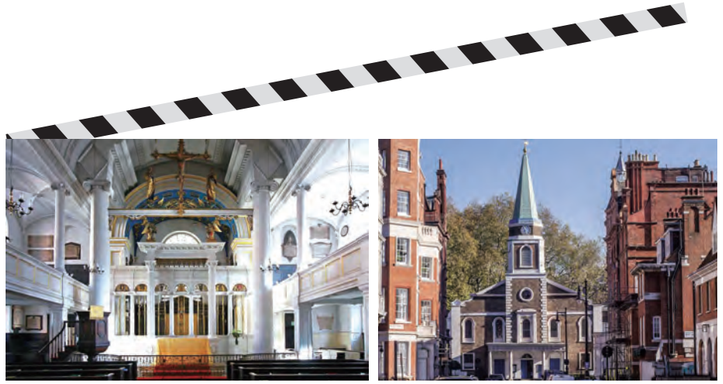
에디터 한유리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들, 사랑을 준비하는 이들, 그리고 지나간 사랑에 아파하는 이들. 영화 속 19명의 남녀는 모두 소리없이 찾아 온 사랑에 울고 웃으며 그 마법같은 설렘을 기다린다. 〈러브 액추얼리〉는 모양과 색깔이 다른 열한 개의 다른 사랑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린 영화다. 2003년 제작된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영화에는 크리스마스의 런던이 낭만적인 러브송으로 펼쳐진다. 그래서일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워지면 러브 액추얼리가 절로 떠오른다. 영국의 대표 영화인만큼 영화 속에는 런던의 일상이 아름답게 담겨 있다. 장르는 코디미지만 로맨스로 착각할 만큼 영화 곳곳에는 사랑에 대한 단상들이 넘쳐난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큐피드의 도시 런던을 찾아 영화 속 '로맨틱 스폿'에서 나만의 '러브 액추얼리'를 펼쳐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ROMANTIC SPOT #1

Heathrow Airport 히드로 공항

사랑은 관문에서 시작되는 걸까? 영화의 처음과 끝이 모두 런던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거쳤을 관문, 히드로 공항에서 촬영되었다. 히드로 공항은 모든 만남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장소로 선보인다. 〈러브 액추얼리〉가 영국의 대표적인 영화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다.



ROMANTIC SPOT #2

Grosvenor Chapel 그로스버너 채플

피터와 줄리엣의 로맨틱한 결혼식이 촬영된 장소는 런던의 아담한 교회인 그로스버너 채플. 친구의 결혼식 비디오 촬영을 맡게 된 마크가 줄리엣에게 한눈에 반하는 운명적인 장소다. 원래 그렇게 유명한 명소는 아니었지만 영화 덕분에 지금은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후문!

ROMANTIC SPOT #3

Selfridges 셀프리지스 백화점

런던 최고의 쇼핑 거리인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셀프리지스 백화점. 영화 속 주인공 해리가 부인을 위해 목걸이를 구매했던 장소다. 실제 많은 런더너와 관광객들이 찾는 이 백화점은 러브 액추얼리의 촬영 장소로 알려진 후 더욱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ROMANTIC SPOT #4

Notting Hill 노팅힐

마크가 줄리엣에게 고백하기 위해 스케치북을 들고 찾아갔던 줄리엣의 집을 기억하는가? 줄리엣의 집은 노팅힐 지역과 가까운 27 St.Luke's Mews에 위치해 있다. 영화 속 줄리엣의 집과 같이 분홍색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다.

카펠라에서 보내는 완벽한 디톡스 데이

A FINE DETOX DAY

광속의 시간에 쫓기다 보면 원초적 휴식이 절실할 때가 있다. 카펠라 싱가포르의 아우리가 스파(Auriga Spa)는 그럴 때 꿈꾸게 되는 도심 속 낙원이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럭셔리한 리조트 카펠라 싱가포르에는 자타공인 싱가포르 최고의 스파가 있다. 청정 자연 속 휴식을 콘셉트로 한 '아우리가(Auriga)' 스파다. 1만2천 평방미터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아우리가 스파는 100% 휴식의, 휴식에 의한, 휴식을 위한 공간이다. 프라이빗 정원이 딸린 9개의 스파 스위트는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스파 체험을 선사한다. 얼음 분수가 있는 바이탈리티 풀(Vitality Pool)과 은은한 허브 향과 함께 하는 스팀 배스는 휴식에 깊이를 더해준다. 아우리가의 웰니스 프로그램은 신체의 리듬 주기와 가장 유사하다는 달의 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우리가의 시그니처 트리트먼트는 100% 오가닉 제품만을 사용, 달의 주기에 맞추어 지친 심신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준다. 카펠라 싱가포르의 아우리가는 포브스 트래블가이드 5성급 스파로 지정된 싱가포르 최초의 스파다. 이 영예로운 타이틀을 무려 7년간 유지해온 사실은 아우리가를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쇼핑, 식도락 등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떠났던 싱가포르 여행. 이제 아우리가 스파로 즐거움에 휴식까지 더해보면 어떨까.

ABOUT CAPELLA SINGAPORE

싱가포르 최고의 프리미어 리조트 지역인 센토사 섬에 위치한 카펠라 싱가포르는 손쉬운 접근성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고객을 사로잡는 리조트 호텔이다. 도심 속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자연 환경 속에서 전통적 역사와 현대적 감각을 고루 누릴 수 있는 흔치 않은 휴식처다. 카펠라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 카펠라가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장소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다. 오래된 싱가포르와 새로운 싱가포르가 만나 즐거운 시너지를 빚는 곳. 카펠라 싱가포르는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AURIGA SPA
Capella Singapore
1 The Knolls, Sentosa Island,
Singapore 098297
www.capellahotels.com/singapore

카펠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맛!

CHEF'S TABLE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최고급 호텔의 미식을 맛본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카펠라 싱가포르의 셰프스 테이블에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20명만 앉을 수 있는 셰프스 테이블은 특별한 날 프라이빗 다이닝 체험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주문에 따라 달라지는 메뉴는 철저히 고객맞춤형이다. 주말에만 선보이는 세련된 애프터눈 티도 놓치지 말 것!

AURIGA SPA, 그 영예로운 기록

2011~2019
포브스 트래블가이드 5성급 스파

2018
〈엘르〉 싱가포르판 '최고의 쿤달리니 마사지'
〈하퍼스바자〉 싱가포르판 '최고의 오가닉 체험'

2017
〈하퍼스바자〉 말레이시아판 '최고의 커플스파 플레이스'

2014
〈HER WORLD〉 싱가포르판 '최고의 스파 체험'

한겨울에도 따뜻한 바다, 아난티 코브

한국에서 가장 좋은 온천, 워터하우스와 힐튼 부산 맥퀸즈 풀까지.
겨울에 더 매력적인 아난티 코브에서 따뜻한 바다를 경험해 보세요.

ANANTI COVE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68-31 T. 1877 8448 ananti.kr

KALPAK COLLECTION

2019 WINTER

여행,
한 해의 더 없이 완벽한 마무리,
그리고 시작

생텍쥐페리는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움 보다 의미 있는 '비움'으로
몸도 마음도 가벼운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숨돌릴 틈없이 달려온 일상,
마음에도 새살이 새록새록 차오를 수 있게 말입니다.

‘인생 여행’을 만나다

내 인생 가장 빛나는 순간의 시작! VIP 고객들만을 위한
KALPAK의 맞춤형 여행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문의 02. 726. 5800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7, 대한항공빌딩 6층 KALPAK팀

KALPAK 맞춤여행 견적 및 예약 절차

1. 여행 문의: 선호하는 여행지 혹은 여행상품에 관한 출발일, 여행기간, 항공 및 호텔 등급 등 일반적인 여행 관련 정보를 들어보고 상담한다.
2. 여행 일정 및 견적: 여행 일정 및 견적은 상담 후 3일 이내에 안내 받을 수 있다.
3. 견적서 등 상품 콘텐츠 확인 후 여행 진행 여부 확정
4. 비용 결제 및 여권 사본 제출
5. 여행 안내문 발송: 여행 관련 항공, 호텔, 차량 및 가이드 등 주요 진행사항 확정 후 안내문과 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다.
6. 해피콜 진행: 여행 종료 후 3일 이내에 여행 관련 만족도를 묻는 해피콜이 시행된다.

KALPAK 멤버십 통합

2019년 2월 1일부로 KALPAK 멤버십이 한진관광 멤버십 내
〈KALPAK 회원〉 자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한진관광 멤버십 〈KALPAK 회원〉 전환 방법**

  기존 KALPAK 멤버십으로 로그인 ▶ 멤버십 전환 신청 ▶
  한진관광 멤버십 〈KALPAK 회원〉 전환

- **한진관광 멤버십(KALPAK 회원) 가입 자격**

  최근 3년 내 KALPAK 상품 1회 이상 이용 고객
  KALPAK 신규예약 확정 고객(요금 완납상태)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MM) 또는 모닝캄 프리미엄(MP) 회원

- **KALPAK 멤버십 혜택**

  - 구매한 KALPAK 상품가의 2% 포인트 적립 및 사용
  - 연간 이용 실적에 따른 추가 혜택 제공
  - 맞춤형 여행 컨설팅 제공 / 멤버십 매거진 KALPAK CLASS 정기 우송
  - 이용 금액에 따라 제주 생수 무료 배송 / 항공권 구매 시 수수료 면제
  - KALPAK 여행상품 이용시 공항 체크인 우대 서비스, 사전 좌석배정, 수하물 우선처리 서비스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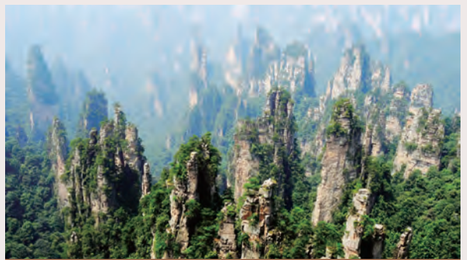
특급 명소 여행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는 휴양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ALPAK CASUAL]
그랜드하얏트 타이베이(Grand Hyatt) 자유 3일

타이베이 랜드마크 101타워와 연결된 호텔을 이용하는 타이베이 특급. 1인 약 20만원 상당의 디럭스룸에서 그랜드스위트로의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더욱 여유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출발 매일
일정 대만(2)
가격 ₩962,000~ / **문의** 02-726-5706



[2인 출발]
무릉도원을 걷다. 장가계, 천문산 4일

‘무릉도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세계적 유산 장가계를 여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라운 플라자, 캠핀스키 등 지역내 최고급 호텔을 이용하며, 호텔 내 중국식 발마사지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출발 매일
일정 장사 - 장가계(2) - 장사(1)
가격 ₩4,000,000~ / **문의** 02-726-5709

여유 만만 여행 (동남아시아)

청정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만끽하는 힐링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오픈 특가]
도심 속 리조트 방콕 포시즌스 (Four Seasons) 자유 5일

2020년 신규 오픈 예정인 리조트 컨셉의 방콕 포시즌스가 포함된 여정. 방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호텔에서 차오프라야 강을 한눈에 조망하며 ‘급’이 다른 도심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출발 매일 / **일정** 방콕(3) - 기내(1)
가격 ₩1,678,800~
문의 02-726-5707

최고의 특전 [스파3회 or 골프3회]
반얀트리 랑코 라군풀빌라 4일/5일

휴양을 위해 다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추천하는 최고의 상품. 1박당 90분 스파가 무료 제공되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에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 라구나 골프 코스까지 완벽한 휴식을 제안한다.

출발 매일 / **일정** 다낭(3) - 기내(1)
가격 ₩2,261,600~
문의 02-726-5714

[Stay 3 Pay 2]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싱가포르 카펠라 (Capella) 자유 5일

2018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개최지인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 머물며 즐기는 ‘정상급’ 싱가폴 여행. 3박 시 2박 요금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약 70만원 상당의 보너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발 매일 / **일정** 싱가포르(3) - 기내(1)
가격 ₩1,843,200~
문의 02-726-5715

[KALPAK CASUAL] [늦은 체크아웃]
푸껫 반얀트리(Banyan Tree) 자유 5일

‘세계 100대 최고 리조트 8위’로 선정된 반얀트리 푸껫. 아름다운 정원과 모던한 디자인이 조화로운 반얀트리 푸껫은 고즈넉한 태국의 멋을 벗삼아 최고의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출발 매일 / **일정** 푸껫(3) - 기내(1)
가격 ₩2,043,200~
문의 02-726-5707

기쁨 충전 여행 (하와이, 미주)

천혜의 환경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탑승] [Pay 2,Stay4]
오아후 포시즌스 자유 6일

'기쁨의 장소'라 불리는 오아후. 오하우 최고의 호텔 포시즌스를 2박 요금으로 4박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상품. 청정 자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라니쿠호누아와 가까워 최고의 전망을 누릴 수 있다.

출발 매일 / **일정** 오아후(4) - 기내(1)
가격 ₩4,769,600~
문의 02-726-5715

[프레스티지 탑승]
유타 아만기리(Amangiri) 자유 7일

'세계 럭셔리 NO.1 리조트' AMAN 리조트에 투숙하며 그랜드 캐니언의 웅장함과 장대함을 느낄 수 있는 상품. 사막 한 가운데에 자리한 최고급 리조트에서 그야말로 웅대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출발 매주 월요일
일정 라스베이거스(1) - 캐니언 포인트(아만기리)(3) - 기내(2)
가격 ₩9,700,000~ / **문의** 02-726-5715

[스위트룸] [다이닝 크레딧 제공]
오아후 트럼프(Trump) 자유 6일

와이키키 비치에서 도보 10분 내에 위치,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하는 오아후 트럼프는 전 객실에 요리를 할 수 있는 키친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미식 체험을 위해 1인당 50달러의 다이닝 크레딧이 제공된다.

출발 매일 / **일정** 오아후(4) - 기내(1)
가격 ₩2,869,600~
문의 02-726-5715

[프레스티지 탑승] [리조트 크레딧 제공]
라나이 + 오아후 포시즌스 자유 6일

셀럽들이 휴양을 즐기기로 유명한 라나이 섬과 오아후 섬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패키지! 빌게이츠가 결혼식을 올린 라나이 포시즌스에서 숙박하며 ATV, 헬리콥터투어 등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출발 매일 / **일정** 오아후(경유) - 라나이(2) - 오아후(2) - 기내(1)
가격 ₩5,100,000~
문의 02-726-5715

이색 체험 여행 (일본, 괌, 대양주)

이색 체험을 보다 깊이 있게 즐기는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할레쿨라니 (Halekulani) 4일

하와이의 대표 리조트인 할레쿨라니의 두번째 리조트. 2019년 8월 신규 오픈한 오키나와 할레쿨라니는 미슐랭 2스타 획득 셰프의 레스토랑과 온천수를 활용한 스파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출발 금요일
일정 오키나와(3)
가격 ₩1,821,600~ / **문의** 02-726-5706

[골프 2회] 호주 시드니 월드 클래스 골프+자유 6일

2017년 'Best VIP Access Hotel'상에 빛나는 랭함 호텔을 이용하는 '월드 클래스' 호주 여행. 아름다운 호주의 풍광에 챔피언십 골프장에서의 라운딩 2회가 포함되어 골프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출발 매일
일정 시드니(4)
가격 ₩6,876,800~ / **문의** 02-726-5706

[KALPAK CASUAL]
도쿄 가조엔 (GAJOEN) 자유 3일

도쿄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백단계단'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 호텔 가조엔. 전통 벽화로 갤러리처럼 꾸며진 복도와 폭포가 떨어지는 전통 양식의 일본식 정원 등이 독특한 여정을 완성해 준다.

출발 매일
일정 하네다 - 도쿄(2) - 하네다
가격 ₩1,521,600~ / **문의** 02-726-5706, 5708

[KALPAK CASUAL]
괌 롯데 주니어스위트(Junior Suite) 자유 4일

18층에 위치해 아름다운 오션 프론트 뷰를 자랑하는 주니어 스위트에서 숙박하는 괌 여행. 괌 최고의 클럽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바나를 2시간 무료 이용하는 칼팍만의 베네핏도 주어진다.

출발 매일
일정 괌(3/4)
가격 ₩1,793,200~ / **문의** 02-726-5708

[비즈니스 탑승]
페루 일주 8일 with 벨몬드 호텔

페루가 선사하는 경이로움과 핵심만 담은 페리 투어를 고루 누리는 패키지. 4개의 비행 전 구간이 비즈니스 탑승으로, 초호화 열차를 타고 떠나는 태양의 도시 마추픽추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출발 매주 월요일
일정 LA(경유) - 기내(1) - 리마(1) - 우루밤바(2) - 쿠스코(1) - 리마 - LA(경유) - 기내(2)
가격 ₩18,900,000~
문의 02-726-5715

[프레스티지 탑승]
파리 로얄 몽소(Le Royal Monceau – Raffles Paris) 6일

아이젠하워, 윈스턴 처칠, 윌트 디즈니, 코코샤넬, 마이클 잭슨 등 수많은 유명인들이 방문한 로얄 몽소에 투숙하며, 메르세데스 밴을 이용한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편도 송영 서비스가 제공된다.

출발 매일 / **일정** 파리(4) - 기내(1)
가격 ₩6,976,800~
문의 02-726-5704, 5709

[4인 출발]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 일주 9일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세빌리아의 이발사〉,〈스페인민박〉 촬영장소를 둘러보는 스페인 여행. 깊이 있는 해설을 곁들인 유럽 3대 미술관 '프라도 미술관'과 수준 높은 플라멩코 공연 관람을 즐길 수 있다.

출발 매주 토요일
일정 바르셀로나(2) - 그라나다(1) - 말라가/마르베야(1) - 세비야(1) - 톨레도/세고비아/마드리드(2) - 파리(경유)/기내(1)
가격 ₩13,576,800~ / **문의** 02-726-5704, 5709

[4인 출발]
영국 속의 또다른 영국,
스코틀랜드 일주 9일

켈트문화의 산실이자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스코틀랜드 일주. Relais & Chateaux 등 럭셔리호텔을 이용하며, 몰트 스카치 위스키 글렌킨치 증류소 방문 및 위스키 시음 등 독특한 위스키체험이 포함된다.

출발 매일
일정 런던(경유) - 에든버러(2) - 펜케이틀랜드 - 에든버러 - 인버네스(1) - 네스호 - 포트윌리엄(2) - 퍼스셔(1) - 스털링 - 글래스고(1) - 런던(경유) - 기내(1)
가격 ₩18,076,800~
문의 02-726-5704, 5709

[4인 출발]
독일, 역사의 가도와
아름다운 캐슬 이야기 9일

고성가도와 괴테가도를 거쳐 동유럽 낭만의 도시 프라하로 돌아오는 여유로운 일정. 5개의 박물관과 6개의 독특한 건축물을 둘러보는 베를린 박물관 섬 관광이 포함되며,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체인에 투숙한다.

출발 매주 토요일
일정 프랑크푸르트(1) - 밤베르크/라이프치히(2) - 베를린(2) - 드레스덴(2) - 프라하/기내(1)
가격 ₩14,076,800~
문의 02-726-5704, 5709

GCSI Global Customer Satisfaction Competency Index Number 1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공자를 모신 사당이 있는 진회강
Qinhuai river, 秦淮河

南京 [난징]

오랫동안 흘러온 대륙의 역사를 만나는 곳

대한항공 중국 난징 주 4회 운항
왕들이 머물다 간 도시, 난징으로 모십니다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

제주의 물 중에서도
귀한 물을 찾아 드시는 분들께만 찾아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물_한진제주퓨어워터

주 문 1544-4060
jejuwater.com
m.jejuwater.com

한정된 양만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
누구나 만나는 흔한 물이 아닙니다.
인터넷과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집 앞까지 특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한진
제주퓨어워터

세계 100대 골프장이 있는 클락

GCSI Global Customer Satisfaction Competency Index Number 1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CLARK

대자연이 즐거움을 더해주는 곳, 클락을 만나다

대한항공 필리핀 클락 매일 운항
클락의 모든 즐거움, 아침 출발로 여유롭게 누리세요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

50 years

쇼핑, 하늘 위에서 특별해지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쇼핑

하늘 위 기내에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누리는
품격 높은 브랜드 쇼핑 – 대한항공 기내 면세쇼핑
엄선된 인기 럭셔리 브랜드와 시즌 별 다양한 구성으로
면세 쇼핑의 즐거움이 더 특별해집니다

Heart to Heart 서비스
해외 여행을 하시는 분이 계실 때, 당신이 마련한 선물과 함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기내에서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cyberskyshop.koreanair.com에서 확인하세요)

기내 면세품 사전 주문 : 080-656-4545 / cyberskyshop.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KYTEAM